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셈법 '제각각'

대전시·의왕시 기존 철도 인프라 활용 ... 청주시는 '반대'

국립철도박물관 부지 선정 일정이 늦어지면서 '제2의 동남권신공항'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 속에 대전을 비롯한 11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셈법을 서로 달라 유치 선정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치신청 지역들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국문분열을 우려, 정부가 이 사업자체를 무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기존의 원안대로 추진될 지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자기부상열차 등 각종 국책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던 대전시로서는 국립철도박물관 만큼은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필승 카드를 던지고 있다.

지난 5월 대전 동구는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유치 서명운동이 20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참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어 대전시는 지난달 27일 기존의 중촌근린공원을 박물관(제2

관) 설립부지로 추가하는 등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기존 대전역 일원에 한정됐던 박물관 설립 계획에서 진일보한 셈이다.

시는 또 철도박물관을 중심으로 대전선을 활용해 대전역과 중촌근린공원, 서대전역을 잇는 5.7km 구간에 증기기관차를 운행키로 했다.

시는 대전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원부지 등 사유지를 적극 활용, 국토교통부의 예산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유치전략을 보면 박물관 설립부지를 '대전역(1관)과 대전선, 중촌근린공원(2관)'으로 확대하고, 대전선을 활용해 1-2관을 왕복 운행하는 증기기관차를 도입한다.

박물관 조성 면적은 1관 3만 9015㎡, 2관 8만 4232㎡이며, 부지 매입비는 사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당초 458억 원에서 약 78억 원으로 줄어들게 했다. 추가 매입부지(1만515㎡)에 대한 매입비용 약

78억 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기 의왕시는 지난 5일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민선 6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철도박물관을 연계한 부지확장 및 리모델링을 실시해 국립철도박물관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의왕시는 철도 관련 인프라와 접근성 등에서 국립철도박물관의 최적지로 꼽히고 기존 철도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전에서 유리하다"며 "지자체간 과열경쟁과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애초 조평동 뉴스테이 건립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려 했으나 동남권 신공항 결정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지자체간 지나친 경쟁과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기존 박물관을 확장하고 레일

바이크와 특구사업 등과 연계해 전국 유일의 철도특구 의왕에 테마가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확정 짓는 사업을 임기 후반기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계획대로 조평동 뉴스테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600억 원의 예산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기존 박물관을 리모델링 할 경우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조평동 철도문화단지에 신설하는 방안보다는 기존 박물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경기 의왕시 등이 기존의 국립박물관 건립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자 철도박물관 유치위원회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치위원회는 11일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철도박물관도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연구용역까지 추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치위는 "정부가 철도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배경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 110여 년 동안의 철도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철도의 발전 과정과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교육·문화 활동 공간과 연구시설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유치위는 "특정 지역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 투명한 과정을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청주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박물관 건립 정책을 거듭 지지하며 애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철도박물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을 비롯해 강원 원주, 경기 의왕, 충북 청주, 세종, 전북 군산, 전남 나주, 경남 창원, 울산, 경북 포항, 부산 등 11곳에 달한다.

정부는 철도문화재의 체계적인 활용과 관리 등을 위해 국비 1007억 원을 투입, 2020년까지 철도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권 시장, 전문건설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권선택 대전광역시시장(사진 오른쪽)이 14일 정인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으로 부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대전 전문건설업 매출액 2조원 시대 개막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청양군 지방자치 행정부문 대상 민선6기 공약이행 부문 가장 높은 점수 얻어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지방자치 21주년 및 민선 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2016 지방자치행정대상에서 지방자치행정부문 대상 수상했다.

군은 공약사항인 200억 청양 사랑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 완료하고, 청양소방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분소 유치, 도시가스 공급 등을 이뤄내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특히 충남소방복합시설 유치확정을 받아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망을 밝혔으며, 인구증가·부자농촌 만들기 2020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군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실천해 왔다.

또한 군은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 및 행복택시제 운영, 전

국최초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 조성, 목욕 및 이·미용쿠폰 지급,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 만족도 지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석화 군수는 "청양의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성원과 열정에 힘입어 반세기 동안 줄어만 가던 인구가 늘고 돌아오는 농촌, 잠자는 부자농촌으로 거듭났다"며, "앞으로도 '위대한 청양, 군민만족시대'를 열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민선6기 후반기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 행정대상은 다양한 평가를 통해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창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청양=정상범기자**

충청권 사드배치 찬성 46.7% vs 반대 34.8%

<리얼미터> 조사결과

사드의 한국내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내 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드의 한국내 배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대북 억제력 제고와 한미공명강화를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44.2%, '낮은 군사적 효용성과 동북아 긴장 고조로 인해 반대한다'는 의견(38.6%)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17.2%.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2월 실시한 사드 배치 찬반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49.4%로, 반대 의견(42.3%)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당시 결과보다 찬반 격차가 7.1%p에서 5.6%p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58.3% vs 반대 28.5%)과 대전·충청·세종(46.7% vs 34.8%), 경기·인천(44.3% vs 37.0%)에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광주·전라(30.3% vs 44.1%)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경남·울산(찬성 43.7% vs 반대 43.0%)과 서울(43.4% vs 42.6%)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두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간에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렸는데, 60세 이상(찬성 67.8% vs 반대 14.8%)과 50대(51.3% vs 40.2%)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은 반면, 40대(찬성 26.8% vs 반대 54.5%)와 30대(37.6% vs 47.3%), 20대(32.5% vs 40.5%)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70.0% vs 반대 14.8%)에서는 사드 배치에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2.7% vs 56.4%)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국민의당 지지층(찬성 46.6% vs 반대 42.6%)에서는 찬반 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7월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4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67%)와 유선전화(33%) 임의전화회거(RDD) 자동응답 전화조사 및 스마트폰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6.0%(총 통화 9,141명 중 547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2%p.

김정환기자

이정복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hite PALE LAGER

한국 대표 축제 아이콘 '보령머드축제' 개막

15~24일까지 10일간 '오감만족' 프로그램으로 펼쳐져

대한민국 대표 축제이자, 문화이콘 '보령머드축제'가 15일 오전 9시 30분 머드체험시설 개막 오프닝을 시작으로 10일간 전 국민을 머드의 향연으로 초대한다. 올해로 열아홉번째인 보령머드축제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머드체험'이라는 주제로 '국민관광지' 대한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7개 분야 57개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한여름의 무더위를 '익사iting(exciting)'하고 '익스트림(Extreme)'하게 날려버릴 수 있다.

▲시민, 관광객 참여의 서막 '거리 퍼레이드' 보령머드축제의 서막은 시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 2.2km행렬을 잇는 '거리 퍼레이드'로 문을 연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주민참여형 퍼레이드로 기획했으며, 가장행렬을 도입, 16개 읍면동과 8개 기관·단체, 4개 학교가 참여해 열띤 경연의 장을 펼치며, 멋진 볼거리를 선사해 줄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 단체에서는 나라별 전통의상 및 춤 공연, 보령연합댄스팀 퍼포먼스, 난타 및 댄스스포츠, 태권도 시범공연, 가면행렬, 요트활용 캐리비안 해적 연극을, 읍면동에서는 각 마을의 전통과 고유성이 담긴 가장행렬로 참여해 진정한 축제의 진수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크다. 또 최종 집결지인 원형토타리에서는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 기아자동차 모닝을 비롯한 꾸민 경품도 준비했다.

▲글로벌 축제에 맞는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 마련 첫날인 15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머드광장에서 머드체험시설 개막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4시 블랙이글스 MOU협약식, 오후 8시 대전해변 열린음악회(머드광장) 및 자매도시인 상해시 청포구 공연단 공연(시민탑 광장)이 열린다. 16일에는 오후 1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홍보대사 위촉식 및 오후 2시부터 시가지 일원에서 거리퍼레이드, 오후 4시 머드광장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 오후 4시 30분 남곡동 갯벌체험장에서 갯벌장애물 마라톤대회, 오후 5시 보령중앙시장 일원에서 도심지 '도시락' 페스티벌, 오후 8시 머드광장 특설무대에서 축제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싸이'와 함께하는 개막 축하공연 및 불꽃판타지가 펼쳐진다. 17일에는 오전 11시에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오후 4시 스페인 토마토축제 체험행사, 오후 8시 공군군악대 초청공연이 열리고, 18일~21일 오후 8시에 머드광장에서는 춤남국악단 공연, 국립경향교향악단 음악회, 세계머드피부미용경진대회 시상식, 머드가요제 및 월드미스모델 아이판대회가 각각 열린다. 22일 오후 2시에는 호텔머드린에서 2022 국제행사유치 학술세미나, 오후 8시 머드광장에서 머드락페스타, 23일 오전 9시 시민탑광장 백사장에서 제12회 해변머드풋살대회와 오후 8시에 머드광장에서 하이트진로 협찬의 '힙합레이브파티', 축제 마지막 날인 24일 오후 8시에는 DJ DOC, 리아, 4SRPM, 윤희석 등과 함께하는 폐막공연과 불꽃판타지로 축제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머드에 흠뻑 빠져, 순간을 즐겨라! 머드축제의 백미인 무료체험시설은 마음껏 미끄러지다 보면 어느새 피부가 좋아지고 가슴속이 뽕 뚫린다는 '머드슈퍼슬라이드(50M)'를 비롯해 체면과 격식이 필요 없는 '대형머드탕', 머드교도소, 대형 풍슬라이드(70m) 등 19종의 에어바운스로 판타스틱(FANTASTIC)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피부 미용에 좋은 머드를 맘껏 느낄 수 있는 '셀프마사지 체험장'과 나만의 무늬를 온몸에 새겨보는 '칼라머드 보디페인팅 체험장'도 운영한다. 기간 중 매일 2회(오후 1시~1시 30분, 오후 4시~5시 30분)머드대포, 분사포, 버블건을 활용해 '머드뽕신' 체험행사도 열린다.

특히, 체험장에서 사용하는 '보령머드'는 올해에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피부자극시험 결과 '비자극성' 결과가 나오는 등 효능은 물론, '안전'에서도 적합한 판정을 받아 아무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료체험존은 평일에는 성인 기준 1만원, 주말에는 1만 2000원이고, 20인 이상 단체 이용시 각 1천 원씩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최근 보령머드축제가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가맹점으로 등록함에 따라 입장료를 문화누리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김태선 기자



보령시, 대한해수욕장 行 대중교통 '대폭' 증차 운행

보령시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 대한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내버스를 대폭 증차 운행하는 물론, 광주, 전주, 당진을 직통하는 신규 노선 개설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제 19회 보령머드축제가 시작하는 15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특별 수송기간으로 정하고 대한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시내버스를 오전 6시 25분부터 저녁 10시 5분까지 매 10분마다 운행함으로써 1일 최대 109회로 증차 운행키로 했다. 또 시외버스도 다음달 15일까지 32일간 터미널에서 대한해수욕장까지 연장 운행하고, 광주 등 3개소의 신규 노선 개통으로 대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의 도모에 발벗고 나섰다. 이에 당진노선은 내포신도시를 거쳐 1일 4회 운행하고 광주는 1일 5회, 전주는 1일 6회 왕복 운행하며, 기존 군산노선은 4회를 증차 운행해 최대 18회 운행한다.

시는 이번 여름철 성수기 대중교통 대폭 증차 운행으로 머드축제와 대한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관광객 유치에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힘을 불어 넣는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 대한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증차 운행 및 신규 노선 운영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 시간은 대천여객(041-933-3350, 3352)으로 문의하면 되고, 시외버스는 보령종합터미널 홈페이지(www.boryeongbu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식 전통 가옥

1 친환경적이다 Eco-Friendly

온도조절이 쉬운, 친환경적인 원목 벽체는 나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느낌과, 뛰어난 단열 효과를 느낄 수 있고, 물과 불에 견디고 있는 자연 재료의 사용에 친환경적이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감을 그대로 살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

MODE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옛 한국 전통 가옥의 정점과 현대적인 아름다움

2 난방이 편리하다 Convenient Heating

온도 조절이 쉬운 원목 벽체를 사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느낌과, 뛰어난 단열 효과를 느낄 수 있고, 물과 불에 견디고 있는 자연 재료의 사용에 친환경적이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감을 그대로 살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

3 전통적인 아름다움 Traditional Beauty

원목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래서 '자연'이라는 뜻을 가진 나무를 사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줄 수 있고, 물과 불에 견디고 있는 자연 재료의 사용에 친환경적이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감을 그대로 살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

BEST PLAN

Mode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대표. 박정호

FAX. 042. 624. 1204

HP. 010.7472.4972

pjmin71456@hanmail.net

대전광역시 서구 오정동 454-6번지 2층

● 동 정 ●

제1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은 15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

홍보대사 위촉식



박용갑 중구청장은 15일 오후 3시 구청 구민사랑방에서 개최되는 '제8회 대전호 문화뿌리축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

KT 행복누리재단 지정 기탁식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15일 오전 10시 구청 행복사랑방에서 열리는 KT 행복누리재단 지정 기탁식에 참석.

제219회 정례회 제5차본회의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15일 오전 10시 대덕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

동구 '화목한 문화산책' 성료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구청 공영장에서 매주 화·목요일 네 차례에 걸쳐 열린 '화목한 문화산책' 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전 동구와 대전시립예술단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동구 주민들의 문화향수성을 충족시켜 공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번 공연은 지난 5일 대전시립연정국악연주단의 아리랑연곡, 관놀이, 속대머리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7일에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며 감동의 무대를 펼쳤다.

특히 12일에는 브라운관을 통해 친숙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소현, 손준호 부부가 출연, 뮤지컬과 클래식만의 만남을 주제로 대전시립교향악단 함께한 공연에 구름관중이 모여들어 100여 명의 관객이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할 만큼 주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인 14일은 대전시립합창단의 디즈니메들리, 레미제라블 OST, 가곡 등 친숙하고 깊이 있는 음악과 동구 고운매합창단의 화음이 조화를 이룬 잔잔한 공연으로 '화목한 문화산책'의 대미를 장식했다.

장인권 문화공보과장은 "무더위를 잊게 만든 다채롭고 감미로운 공연으로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며,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市 사상최대 국비 확보 총력

송석두 행정부시장, 국회방문 지역의원 등 만나 지원건의

대전시시장 권선택은 송석두 행정부시장이 15일과 19일 각각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출신 비례대표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기에는 한 달 남게 남아 있지만 한 템포 빠른 전 방위적인 국비활동 전개로 내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 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엿보인다. 시는 그동안 행정부시장의 총괄지휘아래 9개 반 53명의 국비 확보 대책반을 가동하여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상대로 적극적인 국비활동을 전개하였고, 이 같은 노력을 국회로 옮겨 마지막까지 지고배를 늦추지 않겠다는 자세이다.

또한, 송 부시장은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의 시장현안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시의 현안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건의한 주요사업은 ▲서대전IC 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20억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광역BRT)건설 125억 원, ▲대

전재 생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사업 100억 원,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23억 원,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원도로 개설 50억 원, ▲외삼-유성북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199억 원 등 26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주요 현안사업을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국회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 사상최대 국비확보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중구자원봉사 릴레이 13번째 주자 '호수돈여고'

교내 강당서 '2016 호수돈 아름다운 가게 행사' 개최

중구는 나눔문화와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입한 자원봉사 릴레이에 호수돈여고등학교(교장 김창일)가 13번째 주자로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수돈여고는 지난 13일 교내 강당에서 '기부&Give 스토리가 있는 베품시장'이란 주제로 '2016 호수돈 아름다운 가게 행사'를 개최했다.

호수돈여고 동아리 주관으로 개최된 베품시장은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

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행사 수익금 200여만 원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중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숙화)에 기부할 예정이다.

'호수돈 아름다운 가게 행사'는 지난 2012년부터 매학기 1회씩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호수돈여고만의 특색있는 나눔행사로 학생들의 물품과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박철연 교사는 "아름다운 가게 행사가 이어

져올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갑 청장은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호수돈여고 자원봉사 릴레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많은 기관·단체에서 자원봉사 릴레이에 참여해 이웃사랑을 나누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유성구, 더위야기라 14일 대전 유성구가 구청 대회의실에서 초복을 맞이해 무더위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팔부수를 나누주는 '팔부수 나눔데이'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허태정 유성구청장(오른쪽 3번째)과 간부공무원 등이 직원들에게 나눠 줄 대령팔부수를 만들고 있다.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주년

16일 '대시미 베스트프렌드 모여라 축하호 두살피티' 행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홍미애)는 개관 2주년을 맞아 오는 16일 대시미 베스트프렌드 모여라 축하호 두살피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개관 2년 동안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와 함께 한 수강생, 미디어강사, 시민제작단 등 지역민과 함께 센터 일층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꽃보다 할매들의 은빛 라디오쇼 ▲전도양양 감독 열전 ▲우리가 만드는 대시미 미래가, 2부에서는 참여자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해 나눠 먹으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포트락 파티(Potluck Party)가 마련된다.

특히 '꽃보다 할매들의 은빛 라디오'와 함께 한 수강생, 미디어강사, 시민제작단 등 지역민과 함께 센터 일층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취할 예정이다.

또한, '전도양양 감독열전'에는 독립영화감독 배기원(43세)과 영화감독을 꿈꾸는 초등학교 이 재운(13)군의 유쾌한 대담이 펼쳐진다.

배기원 감독은 최근 '2016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단편영화 경쟁부분에 초청된 것을 비롯해 세계 최대 웹 영화제인 'LA 웹 페스트'에서 촬영상을 수상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는 대전 출신 영화인이다. 이에 맞서는 이재운군은 블록 장난감으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며 영화감독을 꿈꾸는 당찬 꿈나무로 두 사람의 정쟁한 만남이 기대된다. 이영호 기자

폐유리병 색상별 분리배출 시범사업

대덕구-하이트진로(주)대전지점 업무협약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폐유리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위한 색상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1일 하이트진로(주) 대전지점과 업무협의를 갖고 대덕구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산품 폐유리병의 색상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음료나 주류에 사용되는 병류와 달걀 색깔(백색·녹색·갈색)로 잘게 부쇄 유리원료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의약품이

나 식품, 화장품 등 공산품의 재활용률과 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색상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분리 배출하던 유리병 제품의 재활용은 집하장에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분리해야 해 많은 인건비와 기회비용이 낭비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구에서는 폐유리병의 색상별 수거함을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해 주민의 폐유리병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바꾸고 자원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구 관내 공동주택 2~3곳을 선정해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을 맺은 하이트진로(주) 대전지점에서는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공동주택에 분리배출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덕구 청소소생과는 이날 '찾아가는 재활용아카데미' 및 식중독예방교육을 하이트진로(주) 대전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어 폐유리병 분리배출·운반에 대한 교육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위생교육도 실시했다. 김태선 기자



이미현 대전시여성단체협의회장, 사회지도층 특별한 보호공감실 시 이미현 대전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지난 13일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명현)이 추진하는 '사회지도층의 특별한 보호공감'에서 6·25한국전쟁 중 여자학도병 1호로 참전한 박익수 국가유공자(보니파시오요양병원 임원)를 방문, 행복 나눔을 실천했다.



제187차대전경제포럼 조찬세미나 임원의 역할과 책임 주제 특강

대전상공회의소회장 박희원은 14일 오전 7시 유성리 베라호텔 4층 제니스홀에서 '제187차 대전경제포럼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 앞서 시장원 대전지방기상청장, 유용중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사장, 배기웅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본부장 등 최근 신규 부임한 기관단체장의 소개가 있었다.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브렉시트에 이어 최근 한반도의 사드배치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우려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은 주요 교역대상국을 포함해 글로벌 경기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전상의를 비롯한 기업지원 기관·단체들도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권선택 대전시장은 "브렉시트에 관해서는 대전이 영국과의 수출비중이 0.1% 정도에 불과하고, E-발표 시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간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에 대해서는 대전이 대 중국 무역비중이 높은 만큼, 조만간 경제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KT&G 인재개발원 홍석환 원장이 강사로 나서 '존경받는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홍석환 원장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눈앞만 바라보지는 안되며, 능력 있는 인재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을 유지시키는데 있어 임직원 개개인 모두가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원장은 "조직 내에서 임원이 사람이 주(主)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되면, 기업에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지만 잃는 것은 한 순간인 만큼,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을 당부했다.

또 그는 "조직에서 임원이 변해야 회사가 변할 수 있는 만큼, 임원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방향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라 ▲의사결정(좋은 결정을 제때 하라) ▲실행(행동으로 승산 수범하라) ▲부하육성(관리자를 강하게 키워라) ▲말하는 방식(지용을 이끌어라)를 꼽았다.

한편, 이날 조찬 세미나에는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을 비롯해 권선택 대전시장, 정교순 대전시민사랑협의회장, 오상영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 정성욱 대전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강도복 대전시개발위원회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을 포함, 포럼회원, 기관단체장, 기업인,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송병배 기자

시소방본부, 재난 119·범죄 112·민원 110 신고전화통합 시범서비스 전면 시행

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21개의 각종 신고 전화를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3개로 통합하여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15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그동안 운영했던 21개의 각종 신고전화번호를 몰로 열어 폐유리병 분리배출·운반에 대한 교육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위생교육도 실시했다. 김태선 기자

시간 신고정보 공유로 소관기관의 현장출동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119와 112에 걸려오는 긴급하지 않은 전화나 장난전화는 긴급출동 대응시간을 늦추는 원인이 되니, 급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110으로 걸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창업여풍' 여섯번째 프로포즈 열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벤처 사업가·준비자 등 모여 창업 활성화 위한 토크콘서트 열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최길성)는 13일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와 함께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창업여풍 여섯 번째 프로포즈'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지난 6월에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절반의 자원, 여자다'라는 주제로 구체화된 창업 아이디어가 어떻게 사업화 되는지 여성벤처CEO들의 사례를 통해 전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 김영유 회장은 "창업의 두려움의 실체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무지에서 온다. 실제 현장에 선 여성벤처기업인들의 단계별 상황별 경험담의 공유는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의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해결하고, 창업선배들의 어깨 너머 학습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매월 셋째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창

세종=김정환기자

업여풍 프로포즈는 벌써 6회째를 맞이하며,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층이 60%로 그 열기가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또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비여성창업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창업 초기 여성기업가들의 애로해결을 위해 전문 멘토단의 1:1 코칭을 지원중이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던 (예비)창업가들은 함께 고민하고 길을 헤쳐나가는 동반자가 생겨 사업에 활력을 얻고 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최길성 센터장은 "이제 세종시에서 프로포즈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여성친화도시인 세종시가 여성 창조경제 창업지원 시스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류 최초 담뱃잎 사용 '아프리카 마파초' 출시

KT&G, 고대 마야인 피웠던 현존 최고(最古)의 잎담배종 '마파초'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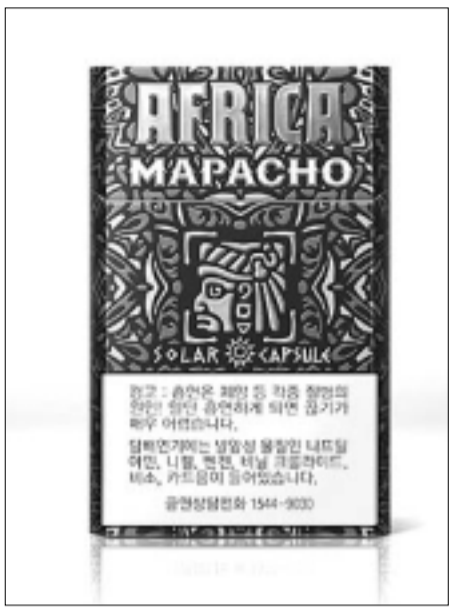
KT&G(사장 백복인)는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담뱃잎으로 알려진 '마파초'를 함유한 '아프리카 마파초 (AFRICA MAPACHO)'를 출시한다.

'마파초'는 1,300년전 고대 마야인들이 피웠던 담배를 지칭하는 단어로 인류가 처음으로 피운 담배로 기록되고 있다. '마파초'는 당시 신에 대한 제물로 쓰였으며, 전투에 임하기 전 승리를 기원하는데 활용되거나 전쟁 용사에게 포상으로 수여되는 등 마야 문명에서 널리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마파초'는 이러한 고대 마야인들의 담뱃잎과 흡연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으로, 부드러운 맛과 함께 높은 흡연 충족감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패키지 디자인은 마야를 상징하는 색인 블루 컬러를 바탕으로 담뱃잎을 시각화한 패턴을 적용하였고, 주술사와 태양을 형상화하는 무늬 등을 활용하여 고대 마야 문명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김기수 KT&G 브랜드팀장은 "이 제품은 마야 문명의 담배를 모티브로 활용한 제품으로, 5mg 레귤러 제품의 풍부하고



부드러운 흡연감이 특징"이라며, "독특함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마파초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은 각각 5.0mg, 0.4mg이며, 가격은 갑담 4500원이다.

김태선기자

여름정기세일 마지막 3일 즐겨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대표이사 황용득)는 오는 17일까지 여름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세일 마지막 주말을 맞아 다채로운 상품행사를 비롯, 경품행사와 상품권 증정행사를 통해 고객들의 즐거운 쇼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2016년 여름세일기간중 제일 큰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브랜드로 골프의류 브랜드 비바하트(60%~50%)와 유니케주얼 CK진과 홀하우스(50%), 유아동브랜드 뽀빠마포, 아르마니 주니어와 유니케주얼 써스데이아일랜드, 명품의류 아이그너(40%)가 세일을 진행한다.

또한 스와로브스키, 루즈엔라운지, 제육스 등 패션잡화 브랜드와 피에르 발랑, 보기밀라노, 앤디앤앤, 막스마라, 코치, 마이클코어스 등 명품브랜드, 피아리, DKNY, 바네사브루노, 자디앤블레르 등 수입브릿지, 닥스키즈, 리바이스키즈, 베네통키즈, 링크뮤등 아동브랜드와 울젠, 시스템웜, 비이커, 갤럭시 등 남성 의류 브랜드, 휠라 골프, 핑 등 골프브랜드, 피엘라렌 아웃도어 브랜드 등이 30% 세일을 진행한다.

20% 세일에는 패션잡화 버켄스탁, 탐스, 명품 브랜드 발리, 에트로, 토리버치, 영캐주얼 톱보이, 온앤온, 시슬리, 보브 브랜드와 유니케주얼 아디다스오리지널스, 홀리빙 쉐한국, 코렐, 알레프랑, 크레이브 등이 참여했으며, 자라 최대 50%, 겐 30~50%, 시스템, SJSJ 30% 세일과 함께 빈폴, 헤지스, 라코스테, 타미힐피거, 랍프로렌 등 트레디셔널 브랜드 시즌오프도 펼쳐져 최대 10%~30% 세일이 진행된다.

송병배기자

청양군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인 영농정착교육 순항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4월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3시간씩 총 18회 64시간에 걸쳐 주요 작물 재배 이론교육 및 현장방문 등으로 귀농인 영농

정착과정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귀농·귀촌에 정착한 귀농인 74명과 양봉연구회(회장 김기수) 43명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최

영수 박사로부터 벌꿀 병해충 및 봉산물 생산교육을 받았다.

양봉연구회는 초기 귀농인을 위해 기초 지식 습득을 위한 현장학습 및 멘토·멘티사업 등 적극적인 지도로 새로운 영농정착을 위한 자부선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귀농인 영농정착과정교육은 농업·농촌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시돼 그동안 380여명이 이수했으며, 이 중에는 블루베리, 토마토, 대추, 포도, 구기자, 고추 등 재배를 통한 성공적인 영농정착으로 고소득 농가가 배출되고 있다.

이번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권효순씨는 "초기 귀농해 작물선정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교육을 이수해보니 작물선정에 많은 도움과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호응을 보였다.

청양=정삼범 기자

중소기업 CEO 94.5%, 올 여름 휴가는 국내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대표 2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CEO 여름휴가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CEO의 45.5%가 올해 여름 휴가(평균 휴가기간 4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가를 계획한 CEO의 94.5%는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여름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겠다는 응답은 전년도 91.4%보다 3.1%p 상승한 94.5%로 나타나 '국내 휴가'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관심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 중 14.8%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거제, 울산 등)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CEO는 주로 '회사업무가 바빠서(46.8%)', '휴가비 등 경제적 부담을 느껴서(27.5%)' 여름휴가를 보낼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휴가 통한 휴식시간이 CEO의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8.5%가 "도움이 된다(매우도움+다소도움)"고 응답했으며, 내수살리기를 위한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 추진, ▲대체·#8228중소기업 상생, ▲규제 및 세금 완화, ▲새로운 업종(장) 창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명소가 재조명되고, 어려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온양6동 패시브건축 견학 잇따라

아산시 온양6동 주민센터가 패시브건축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2일,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학과 교육생 및 건축직 현장경력자 등 약 30여명이 온양6동 주민센터의 패시브건축을 보고 배우기 위한 현장교육을 위해 온양6동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패시브건축 이론교육에 대한 이해증진과 현장실무 배양을 위해 우수한 패시브 공공건축물 현장을 학습하기 위하여 온양6동 주민센터를 견학하게 됐다.

현장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아산시 공공시설과에서는 온양6동 주민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부문 최초로 패시브 건

축물을 계획한 이유와 신축공사 과정에서 경험한 기술자료를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온양6동 주민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대학교, 각종 교육기관 등 견학이 끊이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의 패시브 건축 보급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온양6동을 방문한 건설기술교육원은 국정과제인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전국 건축관련학과 졸업(예정)자를 선발해 '친환경건축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투데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면도농업협동조합

안면도수산협동조합



통계청, 협업을 통해 통계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육군본부 맞춤형 통계교육 실시



통계청 통계교육원(원장 송복철)은 2016. 7. 14(목)부터 이틀간 육군본부 각 부대의 간부 4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계교육을 실시한다.

통계청과 육군본부의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정부3.0을 구현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기초통계 이론 및 통계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엑셀을 활용한 통계자료 분석을 심습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육군에

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군사관련 통계자료의 품질을 제고할 뿐 아니라 통계담당자들의 통계작성 역량과 해석능력을 배양하여 업무분석능력 향상과 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통계교육원은 다양한 기관에 대하여 통계 마인드와 통계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박봉관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지부

유성 방동저수지서 환경정화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지부지부장 정성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방동저수지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쓰레기 및 유해물질과 수변 수중에 산재된 개구리밥(부평초)등을 제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공사직원과 대전지방경찰특공대, 마을 주민들의 지원을 받아 깨끗한 농

업용수 공급과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하루종일 실시했다.

정성규 지부장은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해준 대전지방경찰청과 마을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정복기자

삼계탕, 청다오 물류센터 '첫 입고기념'

청다오 aT물류센터에서 상품검역 후 중국 전역 배송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지난 13일 청다오항으로 수입된 삼계탕의 [한국농수산식품 물류센터] 이하 [aT물류센터] 입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청다오출입검역검역국(CIQ)과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담당 공무원, 주청다오 총영사관 식약관, 청다오aT물류 법인장, 청다오해지촌(수입자) 대표가 참석했다.

행사는 컨테이너 실(sat)개봉, 통관서류 및 제품 비교검사, 라벨심사 및 샘플채취 등 위생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품검역 절차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 모든 과정을 CIQ 상품검역 창고로 지정된 aT물류센터 내에서 진행한 것은 검역 당국과 향후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aT의 대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청다오항으로 수입된 물

량은 지난달 29일 군산항에서 대 중국 삼계탕 첫 수출 기념식을 마친 한국 삼계탕 수출물량 20톤(5개사) 중 청다오항으로 들어온 잠프레 삼계탕 5.3톤, 550박스 분량으로써 위생증명서가 발급되는 대로 aT물류센터를 통해 중국 전역으로 배송된 후 청다오를 비롯, 전국 주요 유통매장에 입점 되어 정식 판매될 예정이다.

청다오aT물류센터 성광돈 법인장은 "이번 삼계탕 초도물량을 시작으로 9월 중에 13톤(1400박스)이 추가 입고될 예정"이라며, "aT물류센터는 CIQ 상품검역 창고의 이점을 살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검역절차를 완료하고 중국 전역으로의 신속 배송, 주요 유통매장 및 현지기업과 연계한 홍보 판촉 지원을 통해 삼계탕의 중국 시장 조기 정착과 수요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국민 100명 중 47명 여름휴가 계획...87% "국내로"

1인당 휴가비 25만4000원...7월 말~8월 초 여행 집중

올해 우리 국민 100명 가운데 47명(47.2%)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7%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약 25만 4000원을 휴가비로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지난달 17~20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379명에게 여름철 국내 휴가여행 계획을 조사한 결과 휴가비는 '20만~30만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고, '10만~20만원'(29.5%), '30만~50만원'(18.0%), '50만~100만원'(16.0%) 등이 뒤따랐다.

여름휴가 계획은 27.3%, 다녀올 예정은 17.5%, 이미 다녀온 응답자는 2.4%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5.5%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민 100명 가운데 47명(47.2%)이 여름휴가를 계획했으며 이 가운데 87%는 국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여름휴가 여행 출발 시점은 7월 25~31일과 8월 1~7일(66.4%)에 집중됐다. 여름휴가를 계획한 응답자 중 42.9%는 이달 29일부터 8월 1일을 기점으로 약 4일간 휴가지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행 평균 기간은 지난해와 같

은 2.9일이었다. 2박3일 42.5%, 1박2일 27.7%, 3박4일 16.8%로 순이다.

휴가여행 목적지는 강원도(24.6%), 경상남도(13.5%), 충청남도(10.7%), 전라남도(9.8%), 경상북도(8.6%) 등을 꼽았다. 지난해 1순위였던 강원도는 2.8%포인트 감소했고, 충청남도는 4.2%포인트 증가했다.

여름휴 계획이 없는 이유는 '여가 및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66.4%), '여행비용 부족'(16.1%), '건강상의 이유'(11.2%)가 컸다.

휴가 기간 이용할 숙박시설은 '펜션'(38.2%), '콘도미니엄'

(16.3%), '가족·친지집'(15.0%) 등이었다.

국내 여행 시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은 25만 4000 원으로, 2015년 조사 결과인 25만 3000 원과 비교했을 때 지출 예상 규모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이번 조사를 활용해 올해 여름휴가여행 총지출액을 추정할 결과 총 4조4018억원의 관광비용이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7조2745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조6671억원, 고용 유발 효과 5만6717명으로 추정했다.

김정환기자

중소중앙회 '소기업소상

공인 휴가지원' 내수 살리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국내 여름휴가 보내기 지원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2일부터 약 1개월간 한화, 대명, 알펜시아 등 전국 주요 휴양지 15개 리조트와 전국 유명 전통한옥 등에 노랑우산공제 '고객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총 530박을 고객들에게 회원가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통한옥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삼산고택', 조선 황실가 종택으로 명륜당에서 이전한 경기도 연천의 '조선왕가, 충남서산 계암고택' 등 10개 명품고택으로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알아보는 '역사기행'과 전통음식과 지수만들기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범죄예방 '안심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아산시는 최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산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사회안전분과를 중심으로 민·관·경이 하나가 되어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안전사업을 추진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아산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리주기자

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범죄신고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비명 소리만으로도 신고가 되는 비명감지 비상벨과 적외선 CCTV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내 대학교와 시민들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아름다운 안심 화장실 만들기 벽화사업'을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아산=리리주기자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내친구 태조산가족캠핑' 호응

2016년 여름방학 맞아 여름방학 프로그램 진행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관장 윤여승)은 2016년 여름방학을 맞아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내친구 태조산가족캠핑'이 호응속에 진행되고 있다.

내친구태조산가족캠핑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천연잔디운동장에서 총 3회 운영되며 1회는 7월 9일(토)~10일(일) '우주과학가족캠핑'이 진행됐다.

2회 행사는 8월 6일(토)~7일(일) '숲놀이-정글의 법칙', 3회 8월 20

일(토)~21일(일) '가족 보드게임 대항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9일(토)~10일(일) 양일간 20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내친구태조산가족캠핑이 진행됐다. 이번 가족캠핑은 우주과학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열렸다.

1부에는 이현배 사무관(서울시립문대)이 시뮬레이션 별자리 강연으로 가족의 눈높이에 맞는 강연이 이어졌고, 2부에서는 김종태 천문대장(천안홍대용과학관이 직접 탐 관측을 진행했다.

캠핑에 참가한 한완희 가족은

"아이들과 처음하는 캠핑에 걱정과 설레임으로 참석하였는데 수련관에서 불편함 없이 준비해주시고, 물총놀이와 별자리 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윤여승 관장은 "여름방학에 다양한 테마로 진행되는 내친구태조산가족캠핑을 통해 지역사회에 가족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를 잡겠다"고 말했다.

내친구태조산가족캠핑 프로그램 문의는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www.caouth.or.kr) 및 전화번호(041-566-0179)로 하면 된다.

천안=김정환기자

한 여름 밤 문화축제 '제21회 고마나루축제' 개막

16일부터 8월 6일까지 토요일 저녁 8시 금강신관공원 야외무대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시민과 함께하는 한 여름 밤의 문화축제인 제21회 고마나루축제를 오는 16일 개막을 시작으로 8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금강신관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서는 축하공연, 고마나루 퍼포먼스, 지역 예술단체와 밴드 동아리 공연, 시가무구 등 매주

각각 다른 주제를 갖고 한 여름 밤 무대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장소별 야외무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축제에서는 축하공연, 고마나루 퍼포먼스, 지역 예술단체와 밴드 동아리 공연, 시가무구 등 매주

축제 첫날인 16일에는 개막식을 비롯한 소리타작 공연, 고마나루 퍼포먼스, 백제선무 공연 등이 펼쳐지며, 23일에는 지역 예술단체의 양상발과 합창 공연이, 30일에는 시민 밴드 동아리들의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 마지막 날인 8월 6일에는 음악과 시가, 퍼포먼스의 융복합적 공연으로써 새롭게 선보이게 될 고마나루 설화를 변용한 시가무구(詩歌舞劇) '고마나루연가'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공주시 문화관광과 축제팀 한상화 담당은 "한여름 무대위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에 속단체와 시민 동아리에게 공연무대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제2차 한네덜란드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은 7월 1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제2차 한국-네덜란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청양군, 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및 청양소방서 합동

천장저수지 부유물 신속 제거 나서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13일 정산면 천장저수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및 청양소방서와 합동으로 지난 집중호우로 유입된 쓰레기 등 부유물 제거에 나섰다.

부유물은 대부분 초목류와 생활쓰레기로 준치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뿐 아니라 악취 및 해충으로 청

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 청양에 대한 이미지 훼손의 우려가 있었다.

이날 청양군은 이남 모터보트 2대와 오일펜스를 이용해 부유물을 수면으로 이동시킨 후 인력을 투입해 부유물을 수거했으며, 앞으로 성장별로 분리작업을 거쳐 폐기처리 할 계획이다.

청양=정성범기자

충남대 해외봉사단, 하계방학 맞아

몽골 바가노르에서 15일간 봉사활동



충남대 해외봉사단이 하계 방학을 맞아 7월 15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 15일간 몽골 바가노르(Bagnuur)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30명의 학생과 교수, 인솔직원 등 총 33명

이 함께 활동하며, 몽골의 수도에서 130km 떨어진 바가노르에 머물면서 마을의 편의시설 개보수 등의 노력 봉사와 함께 한글, 영어, 공작, 태권도 등의 교육봉사 및 각종 공연을 펼친다.

이정복기자

무공화호 열차에 위조 엔진부품 납품한 업자 검거

미국 '커민스'의 위조 엔진부품 중국서 들여와 한국철도공사에 납품



공주시, 제2회 공주시 여성대회에서 4대약 근절 캠페인 지난 13일 공주시 백제체육관에서 제2회 여성대회에 참석한 시민을 대상으로 4대약 근절 홍보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4대약 근절을 위해 홍보 전단지 배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직접 메모를 받는 '희망 달기' 행사를 가져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밤 농가 소득증대, 항공방제 실시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심태섭)는 7월 중순 ~ 8월까지 중형헬기(BELL-206 기종)2대를 투입하여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음봉파출소, 음주감시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지난 13일, 음봉면 소재에서 청와대 견학을 떠나는 장수대학생인솔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감시 및 안전띠 의무 착용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금산서,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난 14일 금산중학교, 금산동중학교, 금산여중학교, 복수중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한전 대전충남본부, '정전 응급복구 모의훈련' 시행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최익수)는 최근 지구온난화 및 '슈퍼 엘라노'의 영향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노후아파트의 수전설비 불량·침수에 따른 정전발생에 대비한응급복구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여성상인 골라 상습 갈취 피의자 구속

서산경찰서, 시민들 안전 도모하는 등 범질서 확립할 것

서산경찰서(서장 손종국)가 식당, 마트, 커피숍 등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20. ○○마트에 찾아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회갑을 들고 피해를 협박하는 등 1시간여 동안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해 식당, 마트, 커피숍 등 5곳에서 14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 및 업무방해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 A씨가 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했다.

손 서산경찰서장은 "여성상인 등 지역주민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은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통해 검거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범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히고, 동네조폭 등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서산=김정환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김모씨(65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자체유통센터를 운영하며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위조된 미국의 커민스사의 엔진부품(납품계약가 1700만원)을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커민스사는 미국에 소재한 엔진 제조 기업으로 세계 190여 개국에 판매법인을 보유)

특허청 특사경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한국철도공사와 무공화호 열차에 사용되는 커민스사의 순정 엔진부품을 납품하기로 입찰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씨는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엔진부품을 들여와, 한국철도공사에 1700만원 상당의 엔진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김씨가 납품한 부품은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

조번호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특허청 특사경에 위조상품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청 특사경과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월 김씨가 납품한 엔진부품에 대해서 미국 커민스 본사상표권자에 위조상품의 정품의뢰 감정결과, 순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어서 지난 4월 20일 김씨가 납품해 한국철도공사에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여점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김씨가 납품한 위조 엔진부품인

도 손, 발, 입안에 붉은 반점 또는 물집이 생기거나 열이 나는 등 수족구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원을 중지하고 자가 격리하는 것이 좋다.

수족구병 감염으로 자가 격리할 경우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가 지원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특히, 수족구병 환자가 고열, 구토 등 신경계 합병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즉시 종합병원을 방문해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성기자

수족구병 환자 2주째 감소...8월까지 유행 예상

손씻기 등 예방수칙 생활화...치료기간 동안에는 자가 격리해야

수족구병 환자가 2주째 감소하는 등 기세가 한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8월까지 유행이 예상되므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생활화를 거듭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101개 의료기관의 표본감시 결과 7월 3~9일 수족구병 의심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 당 45.3명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6월 19~25일·2016년 26주) 1000명당 51.1명으로 정점을 찍은 수족구병 의심환자 수는 6월 29일~7월 2일(27주)에 49.5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주째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

병 원인 병원체 중 증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엔테로71'이 4건 검출됐으며 수족구병으로 시작해 뇌막염, 뇌염, 폴리오양 마비 등 신경학적 합병증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총 7건이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역학조사결과 사망사례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의심환자 수가 2주째 감소했으나 유행은 8월까지 예상되므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 돌보 기 전·후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주의 환경은 청결히 하는 것이 좋다.

세종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7월부터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 본격 시행



하는 빈곤층(차상위계층)이 늘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올리고, 부양 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낮췄다.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차상위 계층)에 대한 매월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70%를 기준(기준액의 60%, 40%, 20%)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최대 매월 19만8000원, 2인가구는 33만7000원, 3인가구는 43만6000원, 4인가구는 53만5000원의 생계비를 매월 지원받게 된다. 세종시는 올 하반기 동안 200여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료로서, 주거용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금융 등 일반재산이 5,400만원 초과자,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시장은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는 가족이 있거나 약간의 재산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사회 전반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정환기자

자총연맹 대전시지부, 대한민국 지키는 사드배치 환영 기자회견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회장 직무대행 정장우)는 15일 오후 2시 대전 중구 능동정거리에서 정부의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부대 배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자유 대한을 수호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개최 및 국민의례, 민주시민교육 송영숙 전 문교수의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김준민 청년 협의회장,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서구지회 허정숙 여성회장의 결의문 낭독(회장 남·여 대표), 구호제창, 폐회 및 주변 정리등으로 진행됐다.

사드배치 환영 결의대회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대한민국은 엄중한 안보상

황에 놓여있습니다.

북한 김정정은 일방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 초 4차 핵실험을 비롯 핵·미사일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주창하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위협해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롯한 무수한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며 호전성을 드러낸 비열한 범죄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핵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김정정은 비정상적인 폭주에 결국 고·미 양국은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WMD)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군사주권 차원의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상황을 이렇게 만든 모든 책임은 북한 김정정은 정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을 겨누는 북한의 핵·미사일에는 침묵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어책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이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의 사주를 받은 세력이겠습니까?

(이하생략)

한국자유총연맹은 우리 정부와 국군, 그리고 한·미동맹의 우월한 능력과 대비태세를 신뢰하며, 어떠한 유언비어에도 결코 흔들림 없이 대국민 안보의식 결집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송병배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한밭대에 익명의 기부자 유언상속 기부

지난 2008년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를 찾아와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해 감동을 줬던 익명의 할머니(70)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마저 유언상속 기부해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는 8년전 그 동안 조금씩 모아 온 1억 원을 기부할 곳을 찾던 중 유능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한밭대에 기부를 결정하면서 한밭대와의 인연은 시작됐다. 할머니는 임을 진단 받고 현재

투병 중에 있으며, 최근 한밭대에 연락해 "적은 금액이지만 임대보증금 260여만 원까지 남김없이 다 주고 싶다"며 추가 기부를 약속했다.

한밭대 관계자는 "기부자의 아름다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2-3주에 한 번씩 자택을 방문하고 안부 전화를 드리는 등 학교차원에서 예우를 하고 있다.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나눔의 씨앗이 되어 사회 곳곳에 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청양소방서, 임시청사에서 업무 시작

내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신청사 착공



청양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청양소방서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지난 14일 신청사 착공에 들어갔다.

2014년 10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78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복권기금 42억, 도비 36.4억)한 청양소방서는 올 1월 청사 신축 현장설명회를 가졌으며, 청양읍 송방리 부지에 연면적 3,426㎡(지상 3층/지하 1층)의 규모로 소방서 차고와 사무실, 체력단련

실, 심신안정실 등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 기존 119안전센터 건물은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군민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안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류석윤 소방서장은 "청양소방서의 청사 완공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세종소방본부, 119인민수상구조대원 발대식 가져 14일 오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활동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갖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제적인 여유 위해” 직장인 90% 맞벌이 찬성

응답자 59.6% 맞벌이 만족,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맞벌이 만족도 더 높아

직장인 10명 중 9명 이상은 결혼 후 맞벌이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직장구인구직(대표이사 최인영)이 직장인 1,061명을 대상으로 맞벌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8%가 ‘맞벌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93%가 미혼자의 경우에는 92.6%가 ‘맞벌이에 찬성한다’고 답해 맞벌이에 대한 생각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대다수 직장인 응답자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렇다면 맞벌이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과반수 이상인 51.9%

가 ‘경제적인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를 꼽았다. 다음으로 ‘세계유지를 위해서’(19.4%), ‘자아실현을 위해서’(10.7%), ‘자녀 양육이나 교육을 위해서’(10.1%),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7.9%)의 순이었다.

외벌이가 가능한 월 수입 금액은 평균 475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26.4%로 1위를 차지했으며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3.4%), ‘600만원 이상’이 21.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6.8%로 그 뒤를 이었다.

맞벌이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맞벌이 생활의 만족도를 묻자 59.6%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맞벌이 만족도에 는 차이를 보였는데 맞벌이에 대해 만족 하는 비율은 남성(32%)이 여성(27.6%)에 비해 높았던 반면, 만족하지 않았다 답한 비율은 여성(21.2%)이 남성(19.2%)보다 더 높았다.

맞벌이 시, 퇴근 후 육아나 가사노동을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일과 가정 둘 다 신경 써야 하는

맞벌이의 현실 속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8.7%가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남성은 48.7%로 여성(51.3%)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육아휴직을 사용 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36.3%는 ‘회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못 쓴다고 답했으며 그 외 ‘복귀 후 승진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39.7%)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정복기자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 실무추진단 운영

충남도교육청,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발달 지원 방안 모색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4일 도교육청에서 학생의 전인적 인 성장발달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 실무추진단 (TF)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학생 개인의 전 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한 실무추진단의 사전 선도학교 교육 활동 지원 장학 이후에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학생별 성 장발달 진단 및 주기적인 피드백, 학 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3자 성장발달 대화 운영 방법이 집중 논 의됐다.

특히 학생의 인지, 정서, 사회, 신 체적 4개 영역에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 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방법, 학부모의 역할 등에 관한 토의가 이뤄졌다. 또한 실무추진단 은 충남 전체학교에서 개별 학생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안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플릿을 개발 보급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천북초 김태길 교장은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 일 반화로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 도 증진 및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 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정책과 이시훈 과장 역시 “앞 으로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이 입회 성이나 특색사업이 아닌 일상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 3주 체가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당부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금오초, 서산 대진초, 세도초, 송남초, 오천초, 의 당초, 천북초, 한내초, 한정초, 화동 초 등 초등학교 10곳 ▲연무중, 영인 중, 주산중 등 중학교 3곳 ▲대전고, 목천고 등 고등학교 2곳 ▲고대초, 천안차암초 등 연구학교 2곳을 학생 성장발달 책임교육 선도학교로 지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충남학생수련원, 다 어울림 캠프 운영

“다 어울림으로 희망과 나눔 실천”

충남학생수련원(원장 박범관)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1박 2일씩 3회에 걸쳐 도내 소규모 학교 학생 450여명 을 대상으로 “다 어울림 캠프”를 실시한 다.

다 어울림 캠프는 도내 농산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존중과 배려,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안전 하고 건강한 체험활동을 위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처음만난 친구들과의 관계형성

을 위한 심상놀이, 공포심을 극복하고 크 기심을 기르는 모험활동과 스포츠클라이 밍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은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충남남도학생수련원 박범관 원장은 “다 어울림 캠프를 참가하는 학생들은 다 양한 캠프 활동을 통해 소통과 협력으로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범기자



당진 서아중, 교내 요리경연대회 실시. 지난 1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요리경연대회는 학교폭력에 방화활동의 일환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요리를 통해 인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태안 근흥초, 종합적인 안전체험교육

태안군과 교육청이 협력해 운영하는 한서대 태안캠퍼스에서 실시



태안 근흥초(학교장 박철호)가 13일 태안군과 교육청이 협력해 운영하는 한서대 태안캠퍼스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실에 참가하여 항공, 해양, 육상분야의 종합적인 안전교육을 받았다.

B737 항공기 탈출체험을 비롯하여 지진, 롤러코스터 체험활동, 화재 발생

시 진입 및 건물탈출, 심폐소생술 체험을 실시했다.

그리고 선박 탈출 및 모터보트 시뮬레이터 체험을 통해 폭 배워야 할 생존수영을 교육과, 건물 탈출과 선박을 탈출을 위한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으로 입수하는 교육도 받았다. 태안-김정환기자

아산성심학교, 장애학생 진로교육 세미나

아산시 특수학급 교사 및 아산성심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실시



아산성심학교(교장 윤경희)는 지난 13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장지원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최하고 아산성심학교와 온양용화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아산시 특수학급 교사 및 아산성심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 최근 동향 및 내실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사 유경순(나사렛대학교 교수)

초빙하여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의 최근 동향, 장애학생 취업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장애학생 취업을 위한 내실화 방안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교사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관련 교수-학습 내용과 기술들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이어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2016학년도 신규교사 평가역량강화 연수

대전교육청, 학생평가문항 제작 방법 지원하고자 마련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대전전신중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의 신규교사 53명을 대상으로 ‘2016학년도 신규교사 평가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번 연수는 신규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평가문항 제작 방법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임용 3년 이내의 신규 교사가 평가 문항 제작에 전문성이 있는 선배교사들과 함께 문항을 제작·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정환기자

청소년의 꿈과 끼, 벤처창업으로 이끈다

대전·충남중기청, 15일 청소년 창업캠프 열어

미래 성공 벤처창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기업을 정신을 일깨우고, 창업 성공비결을 전수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15일 대전·세종·충남 지역 고등학교 창업동아리대상으로 ‘2016년 제2차 청소년 비즈쿨 Jump-up 창업캠프’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인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이번 창업캠프에는 대전·세종·충남 지역 12개 고등학교 40여명의 창업동아리 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은 창업선도대학의 창업지원 프

그램과 시설 등을 견학한 후 ‘발명과 창업, 그리고 혁신’이라는 주제로 CEO 특강을 듣는다.

강의를 맡은 카이노베이터의 김창현 대표는 前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2014년 KAIST 창업경진대회 우승자로서 아이디어와 발명을 창업으로 발전시킨 사례와 성공비결을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울러, 670여인 동안 46개국을 여행한 것으로 유명한 ‘아트로드’ 김물길 작가의 청소년 진로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배우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갖게 된다.

송병기기자

꿈의 틀을 짜기 위한 꿈틀의 날 운영

금산교육지원청, 관내 주요 공공기관·민간기업·특성화고 대상



금산교육지원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산체육관에서 관내 주요 공공기관, 민간기업,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2016 행복금산 꿈틀의 날 지역 특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꿈·끼 탐색주간을 맞이하여 관내 중·고 학생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학교는 학생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지역은 학생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꿈틀의 날 첫번째 영역은 현실적인

직업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산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직업체험, 고장 특성화고 제공 프로그램, 농업기술 센터가 제공하는 농가체험 프로그램 등 28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두번째 영역은 꿈 희망틀로 충청권 산학협력중개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세종·충북) 및 중부대를 비롯해 충청권 12개 대학이 공동 주관하는 대학 학과 체험 부스에서 학과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학과 및 대학 입학 설명회까지 함께 제공했다.

금산=손광우기자



청양 장평중,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

장평중학교(교장 김호중)는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1, 2학년 전체학생이 참여하는 필리핀 어학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어학연수는 장평중학교 역점사업인 “우리 동네 영어통역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장평지역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우리학생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역량을 길러주고자 추진하게 됐다.



늘봄초, 즐겁게 함께하는 늘봄영어축제 개최 늘봄초등학교(교장 이외자, 이하 늘봄초)는 특색사업으로서 다양한 영어 수업 활동을 통해 키워온 실력을 발휘하는 2016학년도 1학기 늘봄영어축제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가로림만 전략 수립 본격 돌입

세종시교육청, 세종형고교체제 포럼 개최 교사 신뢰 제고 · 학교 참여 강조

● 동 정 ●
정책조정회의



이춘희 세종시장은 15일 오전 9시 집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오전 10시에 간부회의의 주제.

한우가족 한미음체육대회개회식



김석환 홍성군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제5회 한우가족 한미음체육대회개회식 참석.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 · 취임식



황선봉 예산군은 15일 오전 11시 라플트웨딩홀에서 열리는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취임식 참석.

충남도가 가로림만을 상생·공존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가로림만 권역 지속가능발전 전략(이하 가로림만 전략)' 수립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14일 태안군 중회의실에서 가로림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주민협의회 회원, 도와 서산시·태안군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림만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가로림만 전략은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접근성 개선을 통한 융·복합 지역 발전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으로 갈등이 일었던 가로림만 권역의 통합 방안을 찾고, 지역 발전 로드맵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가로림만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11월까지 한국해양

충남도, 주민 소득 창출 · 접근성 개선 통한 융 · 복합 지역 발전 모델 제시



수산개발원과 충남연구원 등이 수협 한다.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 대산읍과 팔봉·지곡면, 태안군 태안읍, 이원·원북면 등 2개 시·군 6개 읍·면으로 설정했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가로림만 권역의 자연·인문·사회, 지역경제 기반 시설 등 지역 현황과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관련 계획 및 제도, 사례 등 지속가능 발전 여

지문을 받아 추진 계획을 만들고, 주민협의회와 가로림만 권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 10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뒤 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도는 앞으로도 연구용역은 물론, 가로림만 전략 수립을 마칠 때까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분야별 전문가 검토도 받을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가로림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성과 생물 다양성, 환경이 가장 우수한 천혜의 갯벌이지만, 접근성이 열악해 인지도가 낮고 관광객도 적다"며 "가로림만의 생태·환경적 가치 증대와 더불어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을 구상하며, 나아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전문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세종 관내의 학교장, 교사, 학부모 및 대전, 충북, 충남교육청 교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세종형고교체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세종형고교체제'는 세종시 고등학생들이 적성과 꿈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학생이 원하는 분야에 맞게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 2~4개 고등학교를 인문, 과학, 예술, 직업 등으로 교육과정을 특색화하고, 학생들은 재학 학교만이 아닌 인근 학교의 교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성화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는 대학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타 학교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배움과 삶의 주인이 되는 학교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고 학생의 성적, 학교 만족도, 진로와 진학의 유효성을 높여가기 위한 고교 상황변경준화의 한 정책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반고 상황변경준화 중간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완성된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뒤였다. 토론자로 나선 고해정양지고 교장은 학생의 교육 과정 선택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학생이동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고상은(세종고 교사는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 제고와 학교 참여를 강조했다. 이어 송기복(청주여고 교사는 교육과정의 특성화, 다양화와 더불어 평가관 전환의 필요성을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아이들이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고, 세종의 모든 곳이 학교가 되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새로운 학교, 그것을 만들어가는 세종형고교체제가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교육혁신을 위한 충청권 교육청 순회 포럼으로 대전교육청, 충남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것으로 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추진됐다. 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는 충청권 4개 교육청이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공교육을 선도하고 학생의 성장에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교육청 간 집단 지성과 정책 나눔의 필요성에 따라 구성됐으며 연 4회 운영되고 있다.

정기분 재산세 81만6000건 道, 1778억 1000만 원 부과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81만 6000건, 1778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 절반(10만 원 이하의 전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올해 부과액을 세부별로 보면 △재산세 1135억 7200만 원 △지역자활시설세 497억 2000만 원 △지방교육세 145억 1800만 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 587억 600만 원 △건축물 1188억 8000만 원 △선박 1억 8700만 원 △항공기 3700만 원 등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6억 8200만 원(3.9%) 증가한 규모로, 개별 주택 가격 상승(2.68%)과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당 65만 원→66만 원), 신규 아파트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탁스(http://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 텍 스 , 인 터 넷 지 로(http://www.gi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상,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씨티, NH, KB, BC, 제주, 수협, 광주, 전북)를 통해 지방세 위탁스나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제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외에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개월 동안 증가산금이 가산된다"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제68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적극 추진

홍성군 주민 통합 · 애국심 고취

홍성군은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태극기를 통하여 주민 통합과 함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주요 가로변 가로기 계약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고 노후·훼손된 가로기를 정비하는 한편, 15일부터 3일간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계약하여 태극기

달기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관내 아파트별로 태극기 달기 담당직원을 선정해 태극기 계약을 독려하고 태극기 달기 안내방송을 통해 계약할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더불어 아파트와 마을별로 자발적인 태극기 보급 운동을 권장해 태극기 미 보급 세대에 대한 태극기 구입·비치도우도하고 있다.

이 밖에 군은 공익광고 시행, 현수막 · 배너 설치 등의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군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전 주민이 태극기 계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뜻 깊은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등 주민 의식 고취의 기회로 삼길 바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홍성=최진우 기자

금강 수변공원 장비원 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이종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본부장 홍성덕, 이하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금강 수변공원에 장비원 조성을 완료하고 7월 22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금강수변공원은 3.4 생활권의 금강 제방부를 따라 조성되는 길이 5.1km의 대상형(帶狀形, 띠모양) 공원으로서 꽃향기 넘치는 금강변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도시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방되는 장비원은 세종시 보람동(3~2생활권)의 금강 수변공원에 위치하여 약 3천㎡의 면적에 36종 1만3천주의 장미가 식재되었으며, 부대시설로 장비터널, 포토존, 분수, 주차장, 광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행복청과 LH는 장비꽃이 만개되는 7월 22일부터 24일(3일간)까지 '가족과 연인이 함께 하는 한여름 밤의 축제기간'으로 정하고 조명 · 분수 · 음악 등 서시미를 제공해 시민들이 아름다운 장비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7월 22일 오후 7시에는 장비원의 개장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오후 8시30분까지 행사를 방문하는 가족, 연인들에게 무료사생활용과 장비꽃나누기, 무료음료 제공 등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이정복 기자

김석환군수,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체계 점검

식중독 예방 안전관리 실태 확인

김석환 홍성군수는 13일 예고없이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센터 방문해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점검은 업체들이 급식 부자재 납품과 급식업체 운영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의 비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시설현황과 하절기 식중독 예방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홍성군은 2014. 3. 1일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공급하도록 하는 유통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및 우수한 농 · 축 · 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관내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72개교 13,240명을 대상으로 급식재료 전 품목을 취급, 전국 최초 민 · 협력력 거버넌

스 형태로 군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어 학부모는 물론 영양교사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로인해 올 6월말 현재 82개 기관단체 819명이 센터를 벤치마킹 하는 등 홍성군만의 특색 있고 독자적인 모델로 전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홍성군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활용한 공공급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어업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하여 지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이 확대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최진우기자

예산군 올해 2번째 황새 자연 방사

지붕 열어 직접 방사하는 단계적 방사방식 진행



예산군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시면 시목리 방사장에서 올해 2번째로 황새 5마리를 자연으로 방사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엔 자연으로 돌아가는 황새는 성조 2마리와 유조 3마리로 구성된 가족으로 성조 2마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급의 방사장에 입식돼 올해 봄 3마리의 새끼 황새를 낳아 건강하게 돌봐왔으며 이번 방사는 그동안

생활했던 단계적 저지에서 지붕을 열어 직접 방사하는 단계적 방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동안 지탑 등의 시설 지원을 통해 황새 야생복구에 많은 도움을 준 남상건 LG상록재단 대표와 직원을 비롯해 아마기시 일본 효고공원 원장 등 3명의 일본인이 참석해 방사 행사를 축하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황새의 무사안녕을 기원할 예

정이다.

군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황새들이 야생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비행훈련과 먹이 적응 훈련, 유전자 검사, 위성추적 장비 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이들 황새에게 지난 5월 방사된 황새와 마찬가지로 관리번호와 출생년도, 성별, 부모, 출생지 등을 알 수 있도록 다리에 인식표를 부착했으며 등에는 위치추적 모니터링을 위한 GPS장치가 장착된다.

아울러 방사되는 황새들이 생태문화관광의 도시 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길 바라는 뜻으로 생태문화관의 앞글자를 딴 '생황이', '태황이', '문황이', '화황이', '관황이'로 지어 의미를 더했다.

이에 작년과 올해 방사한 10마리 황새와 이름 앞 글자를 합하면 '대한민국.예산.필승.생태.문화.관'이 된다.

예산=이상화기자

세종시-이텍산업, 전기노면청소차연구개발 상호협력 MOU

친환경 전기노면청소차 개발 앞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국내 최초의 전기노면청소차 개발과 도입에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다"며 "세종시 명확산업단지내 소재한 ㈜이텍산업과 '전기노면청소차 개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기업의 전기노면청소차 개발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기업은 해당 제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세종시 발전 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시는 이텍산업의 전기노면청소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에너

지산업의 육성에 가속도를 내고, 이텍산업은 국내 처음으로 전기노면청소차를 개발하여 세종시를 거점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올해 4대를 생산하고, 매년 생산량을 확대하여 2019년까지 200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전기노면청소차는 하루 4시간 충전하여 8시간 작업이 가능하고, 도심·상가·주거지역의 미세먼지와 분진 청소에 유용하며, 전기모터로 구동되어 매연과 소음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1대당 2,500만원의 운영비 절감효과(경유 청소차 대비)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연구개발 지원 사례를 지자체-기업의 상생 · 발전



DT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우리/동/네

학교급식 효율적 운영 위해 머리 맞대

태안군, 지난 13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향 설명회' 열려

태안군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급식관계자를 초청, 급식지원센터 운영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 13일 군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한상기 군수와 정용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군의원, 충남도 광역급식지원팀장, 관내 초·중학교장 및 영양교사, 학부모, 식재료 납품업체, 농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정책방향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 실정을 감안한 학교급식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공산품을 제외한 식재료를 위탁 운영업체를 통해 우선 공급받는 방식을 시범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품목별 가격 결정과 수급조절 관리를 통한 지역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정책·가격·생산·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무회의를 매월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이날 설명회에서 논의된 학교급식지원센터 정책방향 및 운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울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상기 태안군수는 "군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 지원을 통해 급식 질 향상과 지역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산방지 총력

당진시, 친환경 연무방역기 동원 읍면동 전 지역 강화

질병관리본부가 11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당진시가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뇌염 경보는 채집된 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수 중 일본뇌염매개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발령되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 5월과 6월의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높게 지속되면서 지난해보다 경보발령 시기가 한 달가량 빨라졌다.

당진시 보건소는 각 읍면동에 배치한 친환경 연무소독기를 활용해 모기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내서는 한편 관내 병의원과 연계해 일본뇌염 감염 환자 모니터링과 예방수칙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보건소가 제시한 모기회피 요령은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옷 입기 ▲노출된 피부나 옷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가정에서 방충망 또는 모기장 사용하기 등이며, 진한 향수나 화장품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초접종 3회 이후 받는 추가접종률이 낮아 보호자와 보육시설, 학교 관계자 등의 각별한 관심이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8%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기는 하지만 급성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 기자

송악면 어려운 노인에게 옷 나눔 봉사

이산시 송악면(면장 남정희)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최정임은 지난 13일, 송악면사무소 광장에서 '사랑의 옷 나눔'의대회를 갖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을의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여름바지 80여 벌을 지원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나눔은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15명과 남정희 송악면장 및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체 조성한 기금으로 여름바지를 구입해 지원하게 됐다.

최정임 회장은 "자손이 없어 사랑과 정이 절실한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랑을 담아 옷 나눔 봉사를 펼쳐 기쁘며,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송악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남정희 송악면장은 "어려운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행복한 송악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격려했다.

한편, 송악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 노인들께 봉사활동, 주치집사 지키기 봉사, 환경보호대 청소 봉사, 친절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태극기 달기 봉사활동, 사랑의 옷 나눔 등을 통해 이웃사랑과 지역사회사랑 및 나라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탕정면 복지이장 역량강화 교육

이산시 탕정면(면장 서정원)은 지난 13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이장들에게 '면 복지이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면 복지이장' 복지이장이 앞장서 실현하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각 마을 이장 26명을 초청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마을복지의 리더로서 임무 부여와 복지마인드 향상을 위해 기본 소양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서정원 면장은 "마을의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이장님들이 마을복지의 핵심 역할을 해주시기에 마을의 인적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탕정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복지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간협력을 통해 따뜻한 탕정면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산=리량주기자

"봉사활동 통해 농촌의 가치를 배우다"

군산간호대학교 학생들, 당진서 농촌사랑봉사활동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신평면 금천2리에서 군산간호대학교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가치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농촌 현장 교육 참여를 통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차세대 소비자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금천2리 유순호 이장으로부터 농

업·농촌 가치 이해 교육을 청취한 뒤 미리 배정된 마을 농가로 이동해 잡초제거와 농약병병 수거, 마을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본인들의 전공과 재능을 십분 발휘해 마을 어르신들의 혈당과 혈압을 측정하는 등 간단한 건강검사와 봉사활동도 펼친 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1일 손자·손녀로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이번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에 참여한 군산간호대학교 김민준 총학생회장은 "농촌을 통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농업인들을 보면서 그 고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다"며



"우리 스스로는 농촌의 경쟁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됐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치매예방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열려

아산시는 지난 12일, 아산시청 워크숍룸에서 상황실에서 6개개 치매예방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충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치매예방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신현우 팀장의 사업현황 설명회와 충남치매예방센터 관계자의 치매사업의 전반적인 지식 전달 및 자문으로 진행됐다.

또한, 충남의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 치매예방서비스가 신규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제도적인 어려움을 기존정보 검토 및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재구조화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며, 제공기관 간 경쟁상태가 아닌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한편,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의 기준정보 및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재구조화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아산=리량주기자

양성평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청양

양성평등주간기념 제20회 청양군 여성대회 열려

청양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복순)는 14일 청양문화회관에서 강준배 청양부군수를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양성평등주간기념 제20회 청양군여성대

회를 개최했다.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청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다문화화장단의 식전 공연에 이어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수여, 여성대회 참가자의 결의를 다지는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다.

2부 어울림 한마당 잔치에서는 참석자들의 자기자랑이 펼쳐져 어흥의 시간이 마련됐다.

김복순 회장은 "양성평등은 여성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 모

두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모두가 한마음이 한 뜻으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또한 강준배 청양부군수는 축사를 통해 "남녀가 서로의 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양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청양 만들기 에 온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빈틈없는 복지' 위한 현장복지행정에 앞장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한상기 태안군수, 민간위원장 김윤정 교수)가 지난 13일 태안읍 새마을금고 강당에서 한상기 군수를 비롯한 군 지역사회보장협

의회 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

로, 한상기 군수는 최근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복지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실시된 교육에서는 한상기 군수의 군 주요 복지시책 설명에 이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정숙희 주무관이 '지역사회 민·관 협력 활성화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몰린 주민들을 협의체 위원과 행정기관이 협력·발굴하고 지원받았는지 함께 고민하는 등 민·관 협력의 필요성과 협의체 위원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태안=김정환기자

등 정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이종운 당진시의장=15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

마을회관 개관식

한상기 태안군수=15일 오전 11시 태안읍 동문리에서 열리는 동문6리 마을회관 개관식에 참석.

이·통장 워크숍

이석화 청양군수=15일 오전 10시 청양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2016년 충청남도 이·통장 워크숍에 참석.

교육과정 연수

심재진 당진교육장=15일 오후 3시 당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초·중·고 교사 교육과정 연수에 참석.

전국교육장협의회

조승철 청양교육장=14일~15일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열리는 '2016 하계 전국교육장협의회'에 참석.

친환경살영농조합법인 협약체결
청양군, 상호 업무협력 체계 구축

청양친환경살영농조합법인(대표 정각현)과 화성농협(조합장 김종욱)은 14일 오전 11시 화성농협 대회의실에서 14개의 서울 도시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면 친환경농업인, 학교 관계자, 농협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및 판매협약을 맺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매결연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2016년 학교친환경농업실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산자는 청양의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대상 학교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상호협력력을 꾸준히 해나가기로 했다.

정각현 청양친환경살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이번 자매결연 체결은 그동안 학교급식 납품, 학교 텃밭 조성, 농촌체험학습 등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구축된 상호 신뢰관계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매결연식에 참석한 김동일 대양초 교장은 "농촌과의 교류를 통해 농업의 가치와 농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바른 먹거리를 통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며 "청정지역인 청양에서 생산된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율현초등학교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오는 20일 우수수따기, 소뽕주기 등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양=정성범기자

(042)538-3030

태안신문사 유성로 25-29 태동빌딩 1층

우/리/동/네

벼국내육성 신종종비교전시포 운영

부여군, 평안벼·새싹벼 등 3가지 품종 5ha 규모 설치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석은 "지역에 적합한 벼 우수 품종을 비교 전시하여 고품질 품종 재배 확대 및 품질 고급화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육성 신종종비교전시포를 설치 운영하여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농업인들이 기증 다수확 품종의 한계를 느끼고, 품질이 우수한 품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여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조성된 비교 전시포에는 올해부터 지역농협 자체 수매 품종으로 선정되어 급격히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중대립종 평안벼와 병해충저항성 및 수량성이 우수한 새싹벼 등 3가지 품종을 3지역 5ha의 규모로 조성, 고품질 쌀 생산 매뉴얼을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품종 특성을 한 지리에서 비교, 관찰할 수 있는 10a 규모의 비교 전시포를 추가로 조성했다.

환경마름병에 강한 생명력을 보이는 최고품질 품종인 해품벼 등 일반벼, 특수미 품종인 조생찰쌀, 수확시기가 빠르고 수량성이 우수한 조생종 조평벼 등 6품종을 식재하여 다양한 우수 품종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벼 품종별 생육 및 작황, 병해충 발생정보를 시기별로 농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내년도 품종선택에 대한 정보 제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벼 고품질 유망 신종종 재배를 홍보하고 농업인들이 실천 가능한 재배기술 안내로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해 벼 생산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하며 "비교 전시포에서 수확한 벼는 희망농가와 자율교환을 통해 확대 보급하고, 특히 평안벼의 경우 타사업과 연계 증식포를 조성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여=이정복기자

계룡시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열려

16~17일 축구·충청남도지사기 에어로빅 대회 등

계룡시시장 최홍묵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동호인들의 기량을 맘껏 뽐낼 다채로운 생활체육대회를 펼친다.

시는 계룡시 에어로빅제조회상 김나현(가) 주관하는 제17회 충청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에어로빅 대회가 16일 오전 10시부터 41개팀 500여명이 참가예정인 가운데 계룡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또 계룡시축구협회장 김한중(가) 주관하는 제1회 충청남도 축구협회장기 어르신 및 여성축구대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20개팀 4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어르신 및 여성축구대회는 축구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축구 동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일간 선수와 임원, 가족 등 900여명이 계룡시를 찾는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체육대회와 동호인들 간의 팀워크를 다지며 튼튼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가운데, 다양한 종목에 대한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로 건강한 여가를 즐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지역 자영업자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계룡=추선웅기자

축산시설 일제조사로 경쟁력 강화

부여군,면별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실시

부여군군수 이우영은 축사시설 현대화와 빈 축사의 활용방안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달 31일까지 축산시설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부여군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농가 총 2698호이며, 휴업과 폐업을 포함한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읍면별 조사반을 편성하여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와 협력, 해당 농장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조사반은 축사 방역·소독 시설 등 축산업 허가제 이행사항과, 가족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시설에 대한 허가요건 충족 여부, 무허가 및 빈 축사 현황을 확인한다.

특히 축산업 허가기준 미충족시 보완지시를 내리고, 무허가 축사시설 보유 농가에는 적법화 절차와 기간을 안내해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내 축산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는 축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여군은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족분뇨법에 따라 무허가로 처리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100%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부여=이정복기자

'일상탈출' 가족 함께 도심 속 웰빙숲으로

논산시, 전통수종 등 1만4868주 식재... 도심 속 녹색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터

논산시시장 황명선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활동 공간제공을 위한 '시민행복 지역사회 나눔숲'을 조성, 녹색휴식공간 및 생활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4억2천9백만원의 녹색자금으로 시민공원 내 '시민행복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복원기금으로 조성된 녹색자금으로 산림청, 녹색사업단, 복원위원회에서 산림 및 도심환경개선사업, 환경기능증진과 관련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 4억2천9백만원의 녹색기금을 확보했다.

시민행복 지역사회 나눔숲 사업은 시민공원 조성 시 숲 조성이 계획된 내대지에 녹색 숲, 산책로 및



침터를 조성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전통수종(소나무 등) 27종 9,873주와 초화류(꽃잔디 등) 6종 4,995주를 식재했다.

시민행복 지역사회 나눔숲은 산책로 등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건강 증진 뿐 아니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색휴식공간으로의 장

논산=김태선기자

충남도민체전 준비 실무위원회 열려

계룡시, 건의사항 청취 등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 협의

계룡시시장 최홍묵은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도민체전 실무위원회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대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성공적인 도민체전 전을 위해 분야별 역점 추진사항 설명과 토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 분야별 실무위원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특히 체전 개최 전까지 정기적인 위원회를 열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나타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해결해 야 할 과제로 숙박, 음식점, 교통,

자원봉사, 군부대 출입, 성적향상 등 6개 부문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분야별 관계자 및 관내부서 팀장 등을 대상으로 이달 초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광옥 문화체육과장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민체전인 만큼 시민 모두의 화합을 통한 역량을 최대로 결집시켜 계룡시 발전상을 대외에 알리고 충남도민의 대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사 준비를 위해 실무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도민체전 실무위원회는 단계별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의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추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기관별 협조사항 점검과 업무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 힘 화합으로! 충남의 꿈 열정 구성원 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기관별 협조사항 점검과 업무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계룡=추선웅기자

천안종합운동장 바닥분수 운영

천안시시설관리공단, 8월 21일까지 매일 두차례 가동



춘장대해수욕장 여름문화예술축제 열려

1박 2일 젊음의 끼와 열정 발산, 춘장대해수욕장에 녹아들다



서천군군수 노백래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춘장대해수욕장 중앙무대에 2016 춘장대해수욕장 여름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한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동규가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야외 광장 바닥분수가 지난 7월 2일부터 본격 가동하여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바닥분수는 가로 10m, 세로 6m의 사각분수대로 7월 17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12:00~14:00, 18:00~20:00) 가동하고, 휴식기간인 7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일 2차례 (12:00~14:00, 18:00~20:00) 운영할 계획이다.

주변에 캐노피 4개를 설치하여 그늘을 제공하고 최고 3m 높이로 48개의 노즐에서 뿜어내는 물줄기는 어린이들과 함께 찾아오는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선사하며, 최근 광장개발공사를 통하여 바닥분수 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공요금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전국적인 전력공급 부족사태로 전력피크 시간대를 피해 운영하는 한편, 안전 시 가동을 중단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저수조 청소 및 분수시설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가동기간에도 정기적인 소독과 저수조 물 교체 등 통해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동규 이사장은 "정기적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에 수질검사의뢰와 물 교체 등 통해 청결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전충자 20팀이 최종 경합을 벌인다.

또한 직장인밴드 경연대회는 전문심사위원이 접수된 공연영상을 사전심사 후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0개 팀이 본선대회를 거쳐 오후 6시에 20개 팀이 결선대회를 갖는다.

한편, 전국 청소년가요제, 전국 직장인밴드 경연대회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1팀씩을 선정해 수상자에게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 직장인밴드 경연대회에 응원상을 추가로 선정해 상금을 지급하고 전국 청소년가요제 수상자들에게는 가수인증을 수여된다.

가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cusan.chungang.go.kr 또는 춘장대해수욕장 홈페이지 www.chunjangdaehaehy.com 접속하거나 (주)에일타원 (070-8816-5300) 나 서천군청 문화관광과(041-950-4020) 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김태선기자

동 정
시민과대화의 날 행사
구본영 천안시장= 15일 오전 11시 천안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2시 시민과대화의 날 행사에 참석.

워크숍
황명선 논산시장은 15~16일 오후 3시 아산시도고콘도에서 개최되는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총회 워크숍에 참석.

계룡시여성대회
최홍묵 계룡시장은 15일 오후 2시 신도안면 계룡대쇼핑타운에서 열리는 제12회 계룡시여성대회 참석.

양성과정 수료식
노백래 서천군수는 15일 10시 서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2016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에 참여하고, 오후 2시 보건소에서 열리는 닥터헬기 출동 요청자 교육에 참여하고, 오후 3시 종합교육센터에서 열리는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수료식에 참석.

선분기 전담식
이우영 부여군수는 15일 오후 4시30분 부여군 집무실에서 열리는 수와진 선분기 전담식에 참석.

논산시여성대회 · 어울림문화공연 '성료'
논산시시장 황명선은 제2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13일 오후 2시부터 국민체육센터에서 제27회 논산시여성대회 및 어울림문화공연을 개최하고 화합을 다졌다.

1부 기념식은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선언, 모범여성 표창 및 모범가정 격려와 대화,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2부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여성리더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 강위원 상임이사의 특강으로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찾는 귀한 시간이 마련됐다.

3부 어울림문화공연에서는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의지를 다짐하는 플래시몹 퍼포먼스로 여성친화도시를 홍보하고 마당극과 우금치와 함께 하는 '청아 청아 내밭청아' 공연이 이어지면서 행사장 분위기는 절정을 이뤘다.

한순이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가정 내 업무 분담, 기업 내 근로정책, 성 고정관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의식변화와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논산시여성단체협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논산=김태선기자

(042)538-3030

통정

금요간부회의 주제



오시덕 공주시장은 15일 오전 8시 40분 상황실에서 금요간부회의를 주재, 오전 11시 사곡면 일원에서 열리는 마곡곶다리 개통식 및 운양2리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시설 준공식에 참석,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여름방학 학습지원단 발대식에 참석.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행사



김동일 보령시장은 15일 오전 6시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 행사, 오전 9시 30분 머드광장에서 열리는 머드체험시설 개막 오프닝, 오전 11시 대한노인회 보령지회 사무실에서 열리는 복지소의계증 교류협력 협약식, 오후 2시 남포우리예술문화마당에서 열리는 비비보령 서각전.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열린장터



박동철 금산군수는 15일 오전 11시 군청주차장에서 열리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협의회 열린 장터에 참석.

하계 전국교육장협의회 정기총회



이연주 공주교육장은 15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리는 하계 전국교육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연수참석.

전국교육장 하계연수회



박도순 보령교육장은 14-15일 충남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진행되는 2016년 전국교육장 하계연수회에 참석.

서산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임시회의 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회의는 11일,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반인견을 심의했으며, 이어 12일과 13일, 서산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안전 처리에 앞서 이연희 의원과 운영특위의원은 5분 발언이 있었다. 이연희 의원은 윤, 운영특위의원은 '서산시의 무등목식업소개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회의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결제시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욱 의원 발의) △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인철민 의원 발의)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장은순 의원 발의)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운영 조례안(장갑순 의원 발의) △서산시류택천분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서산소방서 성년 119안전센터 신축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지에 따른 의회 의결제시의 건이다.

서산=김정형기자

반포면 봉곡2리, 도자기 화분 활용해 경로당 환경개선

“마을 어르신들 취미활동 활성화”

공주시 반포면 봉곡2리 경로당 앞 예쁜 도자기 화분에 담겨진 와송과 다육이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반포면에 따르면, 봉곡2리 마을에서는 반포면의 특산물인 철화분 청사기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지난 5월 도자기 만들기 행사를 열고 지난 13일 완성된 도자기 화분에 와송과 다육이 등 100여개를 심어 경로당 주변을 가꿨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철화분청사기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도자기공예가 심경보 씨의 자원봉사와 봉곡2리 마을 어르신들의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오병준 봉곡2리



이장이 한마음이 돼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실시한 오병준 이장과 이옥구 부녀회장은 “마을 어르신들의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한 심

경보 씨의 자원봉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속적으로 도자기 체험 활동을 진행해 어르신들이 웃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

다.”고 말했다.

김영선 반포면장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는 봉곡2리 이장님과 부녀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며, “다른 마을들도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게 지원해 줄거리가 있는 반포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곡2리는 경로당 앞에 66세 이상 어르신들께 블루베리를 한 그루씩 심어 드리고 각자 관리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로당 주변에 다양한 꽃들을 심어 가꾸며 어르신들의 취미활동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보령머드 축제열차&보령 1일 투어 상품 개발

특별한 체험 기회 선사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대전역(역장 한기복)은 금년도 서해안 피서객들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보령머드 축제열차 상품과 내일로 티켓 이용고객&일반고객을 위한 조특가 이벤트&보령 1일 투어 상품을 개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철도공사 대전역, 보령시, 보령머드축제위원회, 보령재활센터, 보령시 주요관광지 업체 다년간 추진한 협력 사업으로 알차고, 특별한 체험 기회를 선사한다. 먼저 보령머드 축제열차는 머드 축제기간 10일(15~24일) 동안 웅산역-익산역간 운행하며, 열차 왕복운임 할인과 보령머드축제 입장권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해안 여름 최고 인기 축제인 머드축제와 연계한 기차여행 상품으로, 즐겁고 실속 있는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다. 이 상품 이용방법은 코레일 홈페이지 종합여행 코너(www.letskorail.com)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대전역은 코레일 젊은이 대표상품 "내일로 티켓" 이용고객을 위한 조특가 "더 투어 오브 대전" 이벤트를 기획하고, 16일부터 8월 16일까지(매주 화, 목, 토요일) 한달간 보령 1일 투어를 진행한다.

지난 2014년에도 대전역에서 "만원의 행복"을 기획해 내일로로부터 큰 인기를 받고 성황리에 운영해 13회, 428명이 보령 1일 투어를 체험하고 갔다. 이 체험을 다시 마련해줄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 대전역에서 2016년 "더 투어 오브 대전"으로 재탄생시켜 이벤트를 마련했다.

투어 구성은 보령시 투어전용버스 + 개화예술공원 + 방죽역 + 착한식당 해물갈국수 + 짬뽕 + 대전해수욕장 자율관광으로 되어 있으며, 이 모든 체험 포함 비용은 내일로 1인 기준 1만5000원, 일반인은 1만8000원으로 신청 및 문의는 대전역(041-935-7788)으로 하면 된다.

투어 전 일정에는 보령시 문화해설사와 대전역 직원이 동승해 투어 일정 종료시까지 가이드를 하며, 체험하는 동안 즐거운 레크리에이션과 각종 경품도 제공되며 즐겁고 알찬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한기복 역장은 "서해안 여름 최고 인기축제인 머드축제와 연계한 코레일의 다양한 기획 상품 개발로 실속 있는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백제문화제 ‘웅진골맛집’ 입점업소 모집

공주시, 오는 26일까지 신청 접수... 오는 9월 24일 개최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하는 제62회 백제문화제에서 공주의 맛을 널리 알릴 '웅진골맛집' 입점 음식점을 모집한다.

올해 웅진골맛집에 입점할 접포수는 20개 업소로 음식점 18개소, 시민단체 2개소이다. 지원 자격은 공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며, 음식점의 경우 공주시에서 1년 이상 음식점을 영업한 업소로서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이다.

시는 선정된 입점업소에 행사장 내 전기, 상수도, 오·폐수처리 정화조, 싱크대, 현수막 등을 제공

하며 입점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탁과 의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는 다른 음식점에게 재분양을 할 수 없으며, 업소별로 휴대용 카드결제기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메뉴는 업소별로 4-5개 정도로 한정되며 조리 과정에서 과다한 연기 배출 등 행사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은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음식판매 시설 내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점업소에서는 액화석유가스 보관시설 및 급속배관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공주=정성범기자

서산시, 청소년 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 등 10개소

여름대비 주요시설 안전점검

서산시의 주요시설인, 청소년 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0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사고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오는 8월 중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건축물의 ▲순상 ▲균열 ▲누수 등의 결함 발생과 도장재료 마감상태,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

의 안전성을 세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누전차단기 정상작동 ▲가스설비·배관의 누출 ▲지하설비 누수 여부 등과 ▲난간 ▲안전띠 ▲방호벽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시설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김택진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사고 발생은 인명사고 발생과 직접 연계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형기자



금산군가족통합지원센터, 다문화·일반차별 통합교육

찾아가는 독서지도 '호응'

금산군가족통합지원센터가 센터 접근이 어려운 면단위(남일면, 남이면, 군북면, 진산면)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지도 책으로 보는 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수업하기 전보다 독서 수업하면서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열정이 더 뜨겁다.

별첨에서 온 A씨는 "전에는 말도 없고 품이 죽어 있는 모습이 많았는데 독서수업을 통해서 얼굴도 밝아지고 자기표현도 잘하며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의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엄마, 아빠와 함께 떠나는 독서여행' 캠프로 자녀들과 함께 하루 종일 책속에 풍덩 빠져보는 즐거운 시간도 계획하고 있다"며 "더 많은 자녀들이 맑게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유치원으로 확장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프로그램문의 및 신청은 다문화센터(750-3990,751-3990)나 이메일(rainbow3990@ramail.net)로 하면 된다.

금산=손광우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우리/동네

서산시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성료

화합-친목 다지는 시간 가져



14일 서산시가 2016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를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 했다.

이통장연합회 서산시지회(지회장 강재원)에서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1천여명의 이통장 및 가족들이 참여해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읍면동 별로 불림축구, 바구니에 공 집어넣기, 투호놀이 등의 화합경기와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강재원 지회장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통장들이 더욱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서산시의 이통장들은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전 행사인 춤바탕에 이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대상을 오지리 유충경 이장외 명이 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통장, 반장들은 해 뜨는 서산의 건강한 활력이자 든든한 뿌리"라며 "앞으로도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된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형기자

산림소득증대사업 사업지 점검

공주시, 60여 개소 현장점검·사후관리 추진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산림소득증대사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 사업지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입산물 소득지원사업의 추진실태 및 사업실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사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림과 입산개발팀을 점검반으로 편성, 2016년 도 상반기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지 11개소와 추진 완료된 사업지 5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실 사업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독려하는 등 산림소득사업의 내실을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정식 입산개발팀장은 "이번 현장점검은 산림소득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입산물 재배 임가들의 고충의 소리를 듣고 실상을 파악할 것"이라며 "임가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제 15회 충남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금산군 전원 수상 영예



국민건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유아기 건강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해 개최된 '제 15회 충남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서 금산군 참가자 전원 입상했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는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충남도, 유니세프 후원으로 지난 7월 도내 각 시·군 보건소에서 추천받은 생후 4-6개월 모유수유아 50여명이 참가했다.

소아과 전문의, 간호학과 교수 등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신체검사, 아기와 엄마의 상호작용을 통한 애착정도, 모유수유 실천 정도, 기타 평가 심사를 거쳐 건강한 모유수유아를 선발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산을 김재아(여, 5개월)가 건강하기상을, 금산을 최민지(여, 5개월)가 예쁘다빛상과 금산을 김민재(남, 5개월)가 존스즈 베이비상을 수상했다.

금산=손광우기자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TV: 하이라이트

▲ 좋은 사람 (MBC 오전 7시50분)



욕심(이효춘)의 방에 정원(우희진)이 있는 것을 본 승희(이민호)는 경주(강성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고 추궁한다. 한편, 승희는 정비사로 부터 남팔당 CCTV 영상이 복원되었다는 보고를 받는데...

▲ 사랑이 오네요 (SBS 오전 8시30분)

담당석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떠올리며 복잡해 하는 해인. 해인은 은혜에게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한편, 티에프림의 자료들 중 해인이

케이블 영화

▲ 어벤저스 (16일 OCN 오후 4시30분)

ASSEMBLE! 최강의 슈퍼히어로들이 모였다! 지구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지구의 안보가 위협당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슈퍼 히어로들을 불러모아 세상을 구하는, 일명 [어벤저스] 작전.

에너지원 '큐브'를 이용한 적의 등장으로 인류가 위협에 처하자 국제 평화유지기구인 쉴드(S.H.I.E.L.D)의 국장 닉 퓨리(사무엘 L. 잭슨)는 [어벤저스] 작전을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슈퍼히어로들을 찾아낸다. 아이언맨(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부터 토르(크리스 헨스워스), 할크(마크 러팔로),

캡틴 아메리카(크리스 에반스)는 물론, 쉴드의 요원인 블랙 위도우(스칼렛 요한슨), 호크 아이(제레미 레너디), 그리고 슈퍼히어로들이 [어벤저스]의 멤버로 모이게 되지만, 각기 개성이 강한 이들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보던 자료만 없어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호는 해인을 부른다. 상호는 해인에게 자료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다그치는데...

▲ 아이가 다섯 (16일, KBS2 오후 7시55분)



상태와 미정은 친구와의 싸움으로 혼나던 아이들이 싸움의 이유가 두 사람의 재혼문제였다고 뒤늦게 털어놓자 마음이 아프다. 태민과의 약속 장소에 도착한 진주는 태민이 대신 나와있는 상민모에 당황하고... 한편, 호태의 드라마 촬영장에 아역을 들고 찾아간 순영과 부모님은 촬영장에 있는 호태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데...

▲ 우는 남자 (17일 채널CGV 오후 10시00분)

그날의 총알 한 발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진실을 원해?" 낯선 미국 땅에 홀로 남겨져 방황한 길러로 살아온 곤. 조직의 명령으로 타겟을 제거하던 중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지르고, 그는 자신의 삶에 깊은 희의를 느낀다. 그런 그에게 조직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리고, 곤은 마지막 임무가 될 타겟을 찾아 자신을 버린 엄마의 나라, 한국을 찾는다.



"당신 이름이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남편과 딸을 잃고, 차마에 걸린 엄마를 돌보며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여자. 모경. 엄청난 사건에 연루된 것도 모른 채 일만 파고 들며 슬퍼하고 있어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녀 앞에 딸의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한 남자가 다가온다. 잃을 것이 없는 남자와 남은 게 없는 여자, 그들이 절벽의 끝에서 만났다

청양 청남초, 학교 스포츠클럽 DAY '건강 줄넘기 대회'

1교 스포츠 운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화 기대



청양 청남초등학교(교장 이택현) 전교생은 지난 13일 명덕관에 모여 스포츠클럽 DAY 행사로 건강 줄넘기 대회를 실시했다.

전교생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저·중·고 3개학년군으로 나누어 많이 뛰기, 오래 뛰기, 2단 뛰기, 2인 줄넘기 왕을 각각 선발하고 긴 줄넘기는 각 학년별로 진행됐다.

대회를 앞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딸을 불러며 열심히 연습하여 대부분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었고 2학기에 실시할 음악 줄넘기에 학생들의 기대가 더욱 커졌다.

이택현 교장은 "장소, 도구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인 줄넘기를 통해 인내심과 협동심을 기르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학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 시민 아카데미, 공부의 神 강성태 강사 초청 강연

『미쳐야 공부다』라는 주제... 공부비법 전수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민정일)에서는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공부의 신 강성태 강사를 초청하여 『미쳐야 공부다』라는 주제로 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구체적인 학습방법부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을 전개할 수 있는 공부방법과, 이를 통해 학습동기와 흥미를 증진시키는 부모, 자녀 간 학습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된다. 또한, 시는 강연에서 두 아들을 서울대에 보낸 자신의 어머니에 대

한 이야기를 통해 부모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진솔하게 들려줄 예정이어서 그동안 자녀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분들, 아이들의 미래설계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태 강사는 수능합격시험 전국 0.1%(396점/400점)의 성적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수재로 현재 공신닷컴 대표로 활동 중이며, 『EBS 부모, 대학입시 가이드』, 『EBS 인터넷 강의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하였고 주요 저서로는 『공부의 신, 천 개의 시크릿』 등이 있다. 아산=리향주기자



당진시, 여름철 시민 물놀이장개장 당진시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물놀이장을 대덕동 여름수변공원 내에 조성해 이달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0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며, 물놀이장에는 물놀이 시설 4면과 파라솔, 샤워장, 탈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용요금은 2500원이다.



대전과기대 민경속교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손발마사지 봉사활동 민경속교수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손발마사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경속교수는 현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피부관리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며, 여성구평생교육원 건강손발마사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흙플러스 봉사단, 청양군 청남면 농촌봉사활동 펼쳐 지난 13일과 14일 농촌일손돕기 봉사를 위해 청양군 청남면 중외마을을 찾았다. 중외마을은 전국 유일하게 구기자를 무료로 사용해 키운 찰 토마토와 구기자토마토로 유명한 곳으로 35명의 봉사단은 토마토 따기, 의료봉사, 벽화그리기, 마실 버스 운영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천소방서, 장항읍남성이용소방대장 취임식 가저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 장항읍 남성이용소방대장 이 취임식 행사가 지난 13일 노박래 서천군수, 서형달·조이환 도의원, 기관단체장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소방서별관에서 열렸다.



공주대 윤용혁 교수, 대학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공주대(총장직무대리 김희수)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윤용혁 교수는 지난 14일 김희수 총장직무대리를 방문해 공주학원연구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적십자사, 강경고등학교 희망나눔 천선미 대상 나눔 교육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회장 민경용)는 지난 13일 강경고등학교에서 올해 새롭게 탄생한 35명의 희망나눔 천선미(적십자 정기후원자)를 대상으로 나눔 교육을 실시하고 후원증을 전달했다.

학교의 정상화 위해... 이사회에서 의결·입장 발표

예지중·고 운영 관련 예지재단 입장 발표

재단법인 예지재단(이사장 송재신)은 학력인정대전예지중·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별감사 수감과 그 결과에 따른 처분에 성실히 응했으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보조금 중단 결정이사 승인취소 계획 발표 및 대전시의회 특별위원회와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이사 전원 교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 입장을 발표했다.

첫째, 박규선 전 이사장 겸 학교장은 재단 및 학교 설립자로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정규학교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소위 '갑질교장'과 한문교과 무자격교사의 수업배정 금지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과 학교장직에서 사퇴하였는바, 더 이상 학교의 학습권을 침해되는 것을 막고 재단의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이사직까지 사임했다.

둘째, 당연직이사 관련하여 본 재단은 2012년부터 정관 중 당연직이사 구성의 위법/위헌성을 근거로 정관 개정을 요구하여 2014년 정관 개정 승인으로 당연직이사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현재 일부에서 말하는 당연직 이사 구성 및 이사 전원 교체 주장에 대하여는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셋째, 이사장 및 학교장 겸직은 2012년 지위승계 당시 대전예지

중고등학교 향후 지도계획(2010.12.31.) 공문에 명시된 사항으로 2015년부터 결직한 것이며, 현재는 정관을 개정하여 결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현 교육감과의 유착관계를 주장하며 특별을 받았다든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무근임(공문요약·이사장 중 이사장은 호선하고, 이사장이 대전예지중고등학교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넷째, 약 5년 전 학사파행 시 참여한 외부세력 등이 현재 학교를 무단침입하고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만학도인 선량한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습권을 침해하고 비정상적 학사파행을 주동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유죄로 확정될 경우 교사와 학생을 불문하고

징계 및 퇴학 등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민간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받드시 못겠다.

예지재단은 학사파행을 막고 학생들의 수업일수 등을 포함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조기방학을(2016.07.18.-07.29., 2주간)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단법인 예지재단 임원 전원은 "변함없이 예지중고의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학습권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학교운영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며 교사와 학생들에게 비정상적 수업거부를 철회하고 학업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건양대-루마니아 카롤의대 상호협력 MOU 체결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는 14일 루마니아 카롤의대와 첨단 의료 및 공학 분야에서의 학생 및 교수 교류, 양대학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현재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김희수 건양대 총장은 현지시간으로 12일 카롤의대 Loand Sinescu 총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양대는 최근 교육부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어 외국 대학과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이번 루마니아 카롤의대와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됐다.

카롤 의대는 154년 전통의 루마니아 최고 의과대학으로 1972년 이 대학을 졸업한 세포생물학자인 조지 E. 팔라디가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비뇨기과, 신경과, 법의학, 미생물학 등 4개 분야에서 유럽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정복기자

'2016학년도 하계 국외봉사활동'

대전대,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 막탄섬 봉사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가 지난 달 27일부터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 막탄섬(Mactan Is)에서 하계 국외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14일 밝혔다.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고 인내력과 책임감, 애국심을 고취시켜 대한민국과 대전대학교의 위상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국외봉사에는 해화봉사단 관계자를 비롯하여 학생 25명이 함께 외교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지난 6월 27일 현지에 도착한 봉사단은 250명의 필리핀 학생들에게 ▲한국어 및 미술 봉사와 ▲보건의(BLG)·위생 및 운동교육, ▲태권도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의 교육봉사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마무리 되었다.

이들은 또 노력봉사의 일환으로 ▲수영장 벽화 작업을 비롯하여 16개 교실에 대한 ▲철관 도색 작업 및 빈민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옥 1채를 신선했으며, 필리핀 주민들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자전거 200여대에 야광반사스티프를 부착하는 등의 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Cordova National High School의 150여명의 학생과 필리핀 세부 막탄섬 내 주민 1000여명에게 한국어에서 준비한 위생용품 및 불펜, 축구공 등을 기부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이정복기자



에너지공단 대전·충남 "대전초등학교 에너지절약퀴즈왕 뽑아라" '2016 에너지절약 독서골든벨 대회'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천석현)는 14일 대전시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서 '2016년 에너지절약 독서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이 '에너지절약 독서골든벨 대회'에 참여해 에너지 문

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경연하며, 에너지절약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대전시 초등학생 4~6학년은 대상으로 사전에 접수받아 총 21개교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송병배기자

119신고 요령, 지속적 홍보·안내

서산소방서, 어린이·노약자대상 실시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가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19신고 요령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 하고 있다.

노약자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한 나머지 "빨리 와주세요"라고만 반복해서 말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노인과 어린이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119 신고요령으로는 휴대폰이 아닌 유선전화로 신고하는 것

이다. 위급상황 발생 시 주변에 유선전화로 신고하면 119상황실에서 자동으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쉽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고 위치를 설명할 때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혼용하지 말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야 하며, 주소 모를 경우 주변의 큰 건물, 간판 전화번호, 전신주 번호, 엘리베이터 번호 등을 알려주면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

서산=김경한기자

와인을 말하다! 와인랩(wine lab)

소믈리에 박재현... 대전 와인문화의 대중화 이끌어 낸 중심



신의 물방울이라고 일컫는 와인은 서양 상류사회의 문화에서 이제는 대중성을 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추세이다.

와인은 술, 음식의 범위를 넘어 문화로서의 자리 매김을 해오고 있다.

생산지, 포도의 종류, 토양, 기후 등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 특색있는 맛과 향이 구분되는 와인의 적당한 음용에는 건강에까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

우리 지역 와인의 대중화는 2005년 대전와인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뽕안와인 아카데미, 비노비노아카데미의 설립으로 와인 교육 및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즐기며 유대의 장을 만들고 있다.

대전 와인문화의 대중화를 이끌어 낸 중심에는 박재현 소믈리에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 하겠다고 할 수 있다.

박재현 소믈리에에는 2005년 대전의 와인 문화의 확산과 시장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오게 되었다.

이후 위에 소개한 아카데미들의 설립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와인레스토랑(비노비노)을 오픈하여 지난 10년간 문화센터, 방송 및 기업체 및 학교등의 강의로 대전의 와인문화 보급에 앞장선 선구자이다.

박재현소믈리에에는 앞으로 와인문화의 대중화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강의 활동과 함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후배 양성의 목표를 가지고 와인랩(wine lab)이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글로벌교육문화원이라는 지역의 평생교육시설과 함께 와인분야에 전문직업인 양성 및 와인산업 및 동호인들의 각종 컨설팅을 제공 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민·관·군 협력으로

폭우피해 농가복구

공주시 계룡면에서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가정을 민·관·군이 힘을 모아 복구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공주시 계룡면 화은2리에 살고 있는 최인숙 씨(여, 66세) 주택 뒤편 산사면이 붕괴돼 가족의 벽면까지 토사가 쓸려내려와 큰 피해를 입었다.

고령의 여성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애를 태우던 중, 이런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화은2리 노영섭 이장과 3585부대 3대대대대장 조우현은 지난 11일 김영우 대위 등 9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마을 주민 오호석(남, 42세)씨가 트랙터를 지원해 최 씨의 주택을 완벽하게 복구했다.

최 씨는 "동네주민들의 도움과 군부대의 지원으로 폭우피해를 말끔히 복구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며 "이번에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 내일처럼 밝고 이웃사촌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용문구 용문로 36-20 세종빌딩 7층

기고

즐거운 여름 휴가,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기부터!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프랑스의 대문호이자 국민적 시인으로 칭송받는 '빅토르 위고'가 1843년 딸 레오폴딘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다고 한다. 자신의 소개로 인연을 맺게 된 시위와 함께 사랑하는 딸이 뱃놀이로 하다가 익사했으니 그 심정은 오죽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물놀이 도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물놀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7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에 대비, 119시민 수상구조대와 해상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 괴산군 달천강변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친구를 주변에 설치된 구명환을 던져 구조했고 강원도 홍천군 침소폭포 인근 하천에서는 물에 빠진 초등학생 2명을 안전관리 요원이 구조하기도 했다.

물놀이를 중지하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넷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들어가서 구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한 후 주위에 있는 구명환, 튜브 등을 이용해서 구조하도록 한다.

기고

정전 63년, 총성은 멈췄지만...



김경호 대전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의 달 플래카드를 그려 스쳐 지나 갔을 것이다. 또한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속제를 하기위한 현충일의 의미에 관한 질문 등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은 관심 밖의 일 인양 호국보훈의 달 의미가 퇴색된 채 휴일을 즐기기에 바쁘다.

7월 UN군을 창설하고 7월8일 UN 군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6·25전쟁에 총 21개국 이 참전하게 되었으며, 16개국의 전투 병력과 5개국의 의료지원국이 UN군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전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아직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이 아주 먼 과거나 다른 나라의 상황처럼 여기고 있는지 모른다.

정전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아직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이 아주 먼 과거나 다른 나라의 상황처럼 여기고 있는지 모른다.

기고

폭우나 장마철 안전운전 이렇게 해야 사고 줄인다!



강종하 서산경찰서 순경

2016년 장마는 7월초를 시작으로 7월 중순인 22일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장마 전선의 북상으로 장마시작을 예측하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사이 발생했다. 즉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 33%인 442명이 장마철에 집중된 것이다. 이러한 장마철 교통사고의 원인과 이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자 한다.

가 잘 들리지 않게 됨에 따라 다른 차에서 누르는 경적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빗길 운전 중에는 평소시에 틀던 라디오나 통화를 자제하여 외부의 소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야 한다. 비오는 날 안전운전에는 감속운행이 최고이다. 아무리 운행조건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도 천천히 차량을 운행하게 된다면 큰 사고는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사설

만취자 '폭력' 관용 안 된다

만취자의 '불지마폭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강력부장) 최근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혐오범죄 근절을 위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으로 한 범죄에만 적용하던 것을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물건에 대한 폭력범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삼심이웃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흉기 사용 범죄나 피해가 중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 등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는 경제문제에 올인해야

우리 국민 대다수가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경제 문제'를 꼽았다는 살림살이가 어느정도도 파악한 지 집적이 가고도 남는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0대 국회'가 어떤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76%가 경제 분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대는 상대적으로 경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경제 분야보다는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87.6%), 비취업자(77.5%), 정규직(74.5%), 비정규직(73.2%) 순으로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보복운전, 당신도 예외일수 없다

기고



이대용 갈산파출소 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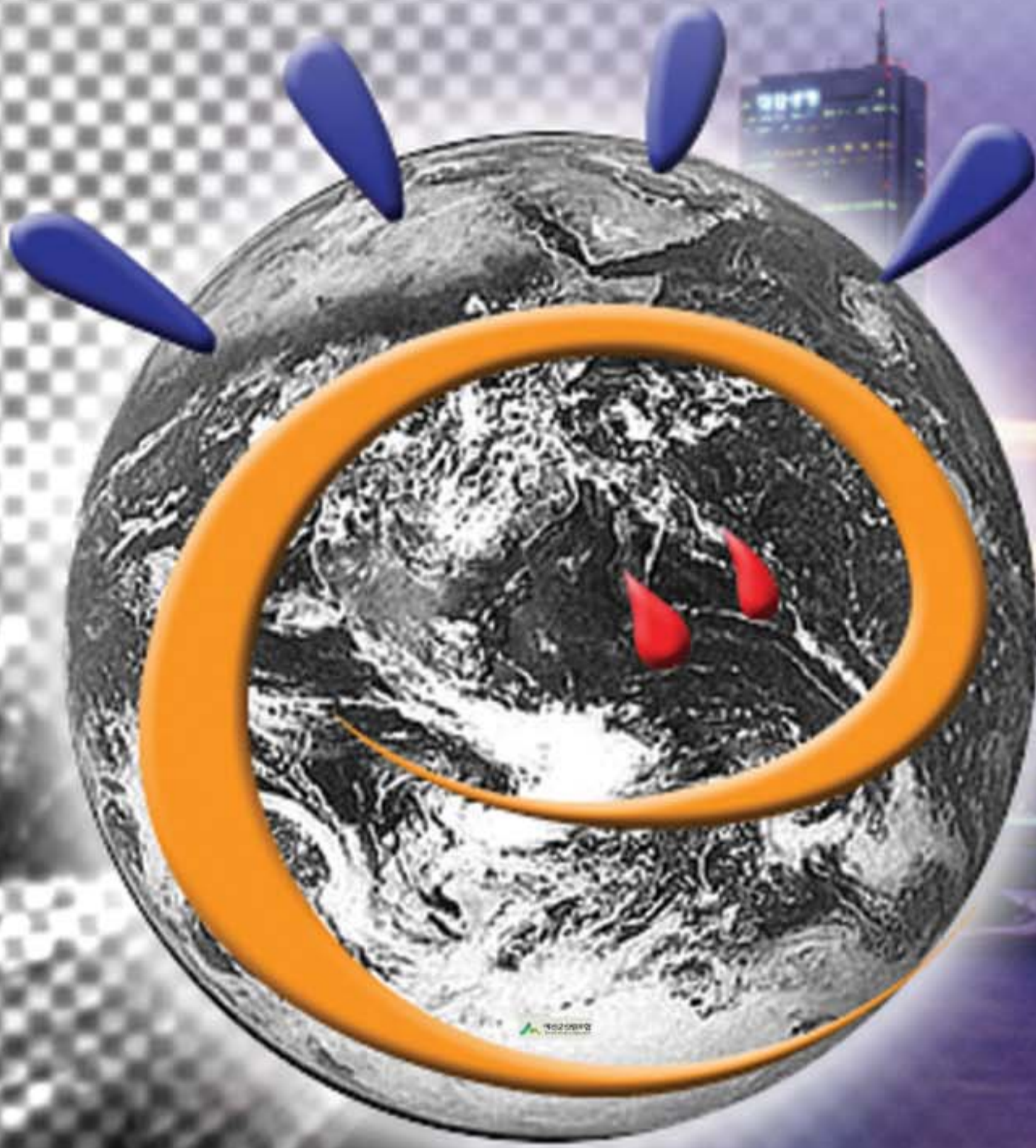
얼마전까지만해도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생소했지만 이제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익숙한 말이 되었다.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보복운전으로 몇 명씩 입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라고 한다. 위험은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도로 위에서도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난다. 이제는 보복운전이 우리에게 낯선 용어가 아닌 것이 이를 증명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한 번쯤은 크고 작은 보복운전을 당해봤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D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 d-mail@tenm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해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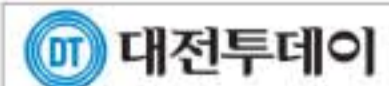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동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번호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내 042538-1602 광고신청내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랑동 63-2 팩스 02392-5143
인쇄처 : (주)북부인쇄산업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

주 관 |



후 원 |

